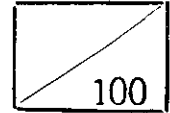


國統 74-1-12



70年代의 國際情勢變動이 南北韓關係에  
미칠 綜合的 影響診斷

1974. 6.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6.

研究機關：慶熙大學校 社會科學調查研究所

研究責任者：李 相 禹



# 目 次

序 .....	5
I . 序 章 : 研究方法論과 前提 .....	8
1 . 分析接近法에 对한 予備的 檢討 .....	8
1) 시스템理論 .....	9
2) 勢力均衡理論 .....	10
3) 게임理論 .....	11
4) 社会場理論 .....	12
5) 政策目標와 政策遂行能力 分析 .....	13
2 . 南北韓關係가 國際情勢에 影響을 받을 理由 .....	14
1)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 .....	15
2) 韓國의 相對的  힘 .....	16
II . 70年代의 國際政治시스템 : 多極化의 意味 .....	18
1 . 兩極体制와 多極体制 .....	18
2 . 多極化의 諸原因 .....	21
3 . 多極化가 意味하는것 .....	23
4 . 多極化 現象이 韓國에 미치는 影響 .....	23
III . 70年代의 유토피어리즘과 리얼리즘 : 極東 .....	25
四大強國들은 무엇을 願하는가? .....	25

1. 強大國들이 願하는 理想的 秩序 .....	25
1) 美國의 外交政策 目標 .....	25
2) 蘇聯의 對 極東外交政策 目標 .....	28
3) 中共의 外交政策 目標 .....	29
4) 日本의 外交政策 目標 .....	31
5) 強大國 外交政策 目標의 綜合分析 .....	33
2. 強大國들의 現實的 利益 .....	33
1) 美國의 利益 .....	34
2) 蘇聯의 利害 .....	34
3) 中共의 利害 .....	34
4) 日本의 現實的 利益 .....	35
5) 現實的 利益의 總和 .....	35
IV. 極東四強의 國力評價 : 強大國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37
1. 人 口 .....	37
2. 國民總生産 .....	38
3. 主要物資生産量 .....	40
4. 潛在國力測定值 .....	40
5. 國防予算 .....	43
6. 兵力 및 主要裝備 .....	45
7. 影響力 綜合分析 .....	49

V . 70年代 極東의 國際情勢가 韓國의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	50
1 . 모델 - 1 : 協商에 依한 南北政治統合 .....	51
2 . 모델 - 2 : 聯邦制에 依한 統合 .....	54
3 . 모델 - 3 : 韓國에 依한 武力統一 .....	57
4 . 모델 - 4 : 北韓에 依한 武力統一 .....	58
5 . 모델 - 5 : 敵對的 共存 .....	59
6 . 모델 - 6 : 中立的 共存 .....	61
7 . 모델 - 7 : 同盟的 共存 .....	63
8 . 綜合的 評價 .....	64
VII . 予想되는 主要變化와 그 影響 .....	66
1 . 毛沢東死後의 中共政治定向 .....	67
2 . 日 · 中共의  제휴가능성 .....	70
3 . 美 · 蘇의 協調體制強化 .....	72
註 .....	75

## 表 와 그 립

### I. 表

表-1 : 韓國과 周圍 四大強國과의 힘의 比較	17
表-2 : 美·蘇·中·日의 人口推移	39
表-3 : 美·蘇·中·日의 國民總生産 推移	39
表-4 : 美·蘇·中·日의 主要產品 生産推移	42
表-5 : 美·蘇·中·日의 潛在國力測定值	44
表-6 : 美·蘇·中·日의 國防預算推移	45
表-7 : 美·蘇·中·日의 軍備比較 ( 1971 )	48
表-8 : 現在의 國際情勢가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65
表-9 : 十全大會後의 中共黨政治局 分派別構成	69

### II. 그 립

그림-1 : 美·蘇·中·日의 GNP 推移	41
그림-2 : 美·蘇·中·日의 國防預算趨勢, 1950-1973	46



## 70 年代의 國際情勢變動이

###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綜合的 影響 診斷

#### 序

本 論文서 밝혀보고자 하는 核心的 課題는, 1970 年代의 國際情勢가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이다. 國際情勢를 國際政治시스템의 주어진 時点에서의 狀態라고 把握한다면 이 主題는 國際政治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主要한 變化가 그 國際政治시스템의 한 亞시스템(Subsystem)을 이루는 韓國의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influence)을 分析하는 것이 된다. 韓國의 南北關係라는 시스템의 要素行爲者(element actor)로서의 韓國과 北韓은 行爲決定에 있어서 全的으로 國際情勢의 變動에 依存하는 것은 아니다. 國際情勢는 行爲決定의 環境的要素가 될뿐이다. 이런 環境的要素로서의 國際情勢가 어느정도 比重으로 한 國家의 對外行爲 意思決定에 影響을 주는가 하는 것은 그 國家와 그 周圍環境을 構成하는 主要國家와의 힘의 相對的關係에서 決定해진다. 相對的弱小國家들로 形成되는 國際政治시스템의 環境을 이룰때 強大國이 參與하는 亞시스템的 政治시스템은 우리가 말하는 亞시스템優勢(Subsystem dominant)의 狀態를 이루어 國際政治시스템이 亞시스템에 주는 影響보다는 오히려 亞시스템이 國際政治시스템에 影響을 주는 쪽이 더 크다. 美·中共의 「和解」의 例가 좋은 본보기다. 韓國의 南北關係가 어느정도로 外部環境에 影響을 받을까는 韓國의 힘과

主要 環境圈의 힘과의 比較를 해봄으로써 判定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第Ⅰ章 序章에서는 分析接近法에 對한 予備檢討를 함과 同時에 왜 南北關係가 國際情勢에 敏感하게 影響받는가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第Ⅱ章에서는 國際政治시스템 自体의 變化를 分析하여 봄으로써 南北關係가 이루어지는 全体的 맥락( Context )을 밝히고, 第Ⅲ章에서는 主要強大國들이 東北 亞細亞에 對하여 가지는 利害를 지금까지의 外交政策史에서 抽出하여 強大國들이 願하는바를 分析하고 第Ⅳ章에서는 主要強大國들의 힘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줄 수 있는 影響力의 限界를 가늠하여 보려한다. 個人의 行爲에 비유한다면 第Ⅲ章은 意思를, 그리고 第Ⅳ章은 能力을 보는셈인데, 第Ⅲ章과 第Ⅳ章을 합쳐서 본다면 主要強大國들의 行爲樣相의 윤곽이 判明될 것이다.

本 論文의 主題는 어디까지나 國際情勢가 韓半島의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分析이다. 따라서 影響을 받을 南北關係에 對하여 考察할 必要가 있다. 本論文 第Ⅴ章에서는 우선 論理的으로 想定할 수 있는 모든 南北關係의 樣相을 몇個의 모델로 묶어 分類하고 第Ⅱ章부터 第Ⅳ章에 이르는 國際情勢分析서 算出된 結果를 諸 모델에 投影해 봄으로써 各 모델에 미칠 影響들을 分析해 보려한다.

第Ⅵ章에서는 앞으로의 展望을 시도해 보려한다. 앞으로의 國際情勢를 精確히 予測한다는 것은 現在水準의 社会科学 研究方法으로

는 不可能 하다. 그러나 지금의 現狀分析서 얻어지는 直觀力에  
依하여 予想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變數를 추려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變數의 變化에 따를 영향을 想定해 볼수는 있을 것  
이다. 이러한 角度에서 몇個의 予想할 수 있는 主要變化를 中心  
으로 想定되는 影響들을 推理해 보려 한다.

本 論文에서는 어떤 特定の 理論이나 모델에 依存하지 않고 여  
러 理論이나 모델이 提示하는 思惟發想法들을 必要할때마다 援用하  
면서 分析을 行하기로 했다는 點을 밝힌다. 國際政治學에 關한  
아직도 어떤 理論도 現狀分析에 決定的 보탬을 줄만큼 發展된 것  
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I. 序章：研究方法論과 前提

## 1. 分析接近法에 對한 予備的 檢討

國際政治시스템은 構成各國의 對外行爲의 總和로 이루어진다. 各國의 對外行爲의 分析은 시스템次元, 國家的次元 및 意思決定者의 個人的次元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sup>註1)</sup> 즉 國際情治시스템 自體의 變型과의 連關에서 綜合적으로 分析할수도 있고<sup>註2)</sup>, 國家를 하나의 理性的 主体로 보고 個人行爲에 類推해서 分析할수도 있는가 하면, 各國의 行態는 따지고 보면 그 國家內의 政府組織속에서의 여러 個人의 行爲들의 總和란 點에서 個人政策決定者 및 政策決定過程을 分析하여 그 나라의 對外行爲를 分析하는 方法도 있다<sup>註3)</sup>. 사실 이 모든 分析方法들은 서로 排斥的인 것이 아니고 서로 補完的이다. 國家를 하나의 理性的 主体로 보고 國家의 意志, 行爲目標, 價值觀, 能力등을 가늠하여 分析해 오던 古典的 모델들은 아직도 國際政治現象을 說明하는 大宗을 이루는 理論體系를 이루고 있으나, 各國內의 政策決定過程이나 核心政策決定者의 個性分析 없이는 說明할수 없는 現象도 많다. 따라서 어떤 國際情勢를 細密히 分析하려면 이 모든 分析 接近法을 함께 活用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分析의 單位로는 個人行爲者, 國家行爲者, 國際機構, 및 國際的 次元의 個人 등을 포함한다<sup>註4)</sup>.

本 論文에서는 便宜上 시스템理論의 테두리에 드는 몇가지 理論을 援用하면서 國家行爲者를 理性的 主体로 把握하는 古典的인 發想法을

主된 分析틀로 活用하면서 副次的으로 個人行爲者 分析을 결드리려 하며 政策決定過程에 관한 組織理論 ( Organizational Theory ) 을 간혹 引用할까 한다.

本論文서 援用될 몇가지 理論모델의 思考構造를 간단히 紹介한다.

#### 1) 시스템理論 ( Systems Theory )

시스템 理論은 하나의 完全한 理論이라고 하기보다는 概念的 틀 ( Conceptual Framework )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스템 理論의 根本이 되는 概念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어떤 種類의 限界線으로 주위환경과 区分되며, 서로 어떤 方法에 따라 交互作用을 하는 一團의 要素들<sup>註5)</sup>이라고 定義된다. 시스템理論의 特色은, 시스템은, 그것이 國際政治시스템이든, 機械시스템이든, 人体시스템이든, 시스템 固有의 性質을 共有하고 있으므로, 어떤 特定시스템에서 發見된 法則들을 다른 시스템理解에 援用할 수 있다는 點이다. 國際政治를 이러한 시스템틀에 집어넣어 國際政治시스템으로 把握할때 가장 두드러지는 利點은 個別 國家의 行態만을 独立的으로 分析하여 國際情勢를 分析할때 다루어질 수 없었던 國際情勢 自体의 狀次分析을 可能하게 해준다는 點이다<sup>註6)</sup>. 시스템 理論의 영향하에서 理論定立을 爲해 努力하는 學者들로는 「모턴·카플란」 ( Morton Kaplan ), 「리처드·로제크런스」 ( Richard Rosecrance ) 「존·버튼」 ( Gohn Burton ), 「찰스·맥클레랜드」 ( Charles McClelland ), 「데이비드·싱어」, ( g. David Singer ), 「칼·도이취」 ( Karl Deutsch ), 「조지·모델스키」 ( George Modelski )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모턴·카플란」의 6개의 巨視的 國際政治시스템 모델은, 現 世界情勢의 推移를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註7).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兩極體制」등은 이 모델의 하나다. 시스템 理論的 接近은 國際情勢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轉移하는 變化過程分析에서 特히 功獻이 많다. 「맥클레런트」가 集中的으로 研究하고 있는 『現在의 二國間의 交互作用이 앞으로의 交互樣相을 決定하는데 관련되는 法則의 発見』등은, 成就하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事態予見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註8)

## 2) 勢力均衡理論 (Balance of Power Theory)

勢力均衡理論은 가장 歷史가 오랜 國際政治學理論으로 中國의 戰國時代, 古代印度, 希臘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흄」(David Hume)이 19世紀初에 쓴 글에서도 最古의 理論이라고 言及되어 있을 정도다. 勢力均衡理論은 理論自體의 單純性도 重要하지마는, 여러 政策決定者들이 政策手段으로 늘 使用해 왔다는 點에서 더욱 意味있는 일이다.

勢力均衡理論의 核心的인 要素는 平衡(equilibrium)과 安定(Stability)이다. 즉 어떤 시스템도 平衡의 狀態에서 安定을 이룬다는 생각이다(註9) 이것이 政策目標로 될때는 한 超大強國의 恣意的 專橫을 防止하려는 群小國家들의 自己保護手段이 되며, 現存 시스템에서 最上位의 地位를 누리는 國家들(Top-dog nation)에게는 挑戰國家의 出現을 防止하여 現狀(Status quo)을 維持하려는 分割統治(divide and rule)의 基本戰略이 된다.

勢力均衡은 어떤 狀態(Situation)를 뜻하기도 하며, 均衡을

이루는 과정( Process )을 뜻하기도 한다. 後者를 뜻할 때는 勢力均衡이란 끊임없는 힘의 轉移를 뜻한다. 즉 깨어져가는 均衡을 바로잡기 爲한 同盟關係의 不斷한 更新을 뜻한다. 따라서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勢力均衡政策은 各國家는 均衡破壞者의 出現을 防止하기 爲해 自由自在로 同盟關係를 바꿀수 있다는 外交의 獨自性을 가져야 한다는 前提와 複數國家들의 聯合된 힘을 능가하는 單一 超大強國이 存在해서는 안된다는 前提條件이 必要하다.

勢力均衡理論에는 國際政治시스템의 安定性과의 關係에서 두가지 對立되는 見解가 並存한다. 그 하나는 傳統的인 見解로, 對立하는 國家群사이의 힘이 均衡을 이루었을때 시스템에 安定이 온다는 見解이고( Balance of Power-equilibrium 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現存 시스템의 最上位者와 次位強大國사이의 힘의 隔差가 클때 오히려 시스템이 安定된다는 見解( Balance of Power-disequilibrium 이라 부른다)이다. 서로의 힘이 比等할때는 誤算에 依한 戰爭可能性이 많다는데 根拠를 두고 있다. 前者의 見解는 「팍스·로마나」( Pax Romana )와 「팍스·브리타니카」( Pax Britannica )의 例에서 立證되었다고 主張하나 「오르간스키」( A.F.K Organski ) 등이 내세우는 後者의 見解도 現在의 中蘇紛爭등을 說明하는데 아주 重要한 役割을 한다.

### 3) 게임理論( Game Theory )

게임理論은 協商과 紛爭에 있어서 적용되는 特殊理論이다. 게임理論은 포커나 장기, 商談에도 적용되나 政策決定, 戰略, 外交協商등에도 널리 적용될 수 있는 理論이다.

게임理論은 相反되는 利害를 가진 相對方을 前提하고 모두가 理性的인 判断을 하며 各各 自己의 利益을 極大化하고 損害를 極少化하려 한다는 前提가 成立될 때 적용되는 理論이다.

게임理論은 利益과 損害로만 形成되는 理性的 모델이기 때문에 數理化를 可能하게 하고 理論의 精密化를 可能하게 해준다는 點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政策樹立 모델이기도 하나 돈으로 算수 있는 經濟的 利害關係와는 달리 抽象的이며 때로는 一致하지 않는 기준으로 계각기 算定하는 利益과 損害를 各國마다 갖고 있는 國際政治에서는 적용에 制限이 많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sup>註10)</sup>

이런 制約을 고려하더라도 게임理論은 서로 競爭的인 立場에서 自國利益을 極大化하려는 狀況에서 各國이 一般으로 취하는 行爲의 樣相에 對한 理解를 돕는 데는 큰 役割을 한다. 뿐만 아니라 各國이 꼭 게임理論대로 行爲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기 쉬운」 行爲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點에서 우리의 事態把握엔 큰 도움이 된다<sup>註11)</sup>

#### 4) 社會場理論( Social Field Theory )

한 國家가 어떤 對外行爲를 決定하고 行할 때는 그 對象國과 自國과의 關係를 想定하고 하게 마련이다. 從來의 國際政治學 理論에는 한 國家의 對外行爲의 決定要因을 그 國家自體의 屬性에서만 찾는 수가 많았다. 한 나라의 國內政治가 不安해지면 對外的으로 敵對行爲를 하는 수가 많든가, 獨裁國家가 民主主義 國家보다 戰爭行爲를 하는 수가 많든가 하는 式의 理論들은 모두 이런 屬性理論( Attribute Theory )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年前 「퀸시·라이트」(Quincy Wright)가  
제창하고<sup>註12)</sup> 그뒤 10년이 지나서 「럼멜」(R.J. Rummel)이 体  
系的인 理論으로 發展시킨 社会場理論<sup>註13)</sup>에서는 이점에 착안, 한  
國家의 對外行爲는 모든 國家가 形成하는 하나의 場속에서 이루  
어지며, 구체적으로 한 國家의 特定 対象國家에 對한 特定行爲는  
그 두나라 사이의 모든 次元에서의 屬性의 差의 總和의 函數로  
規定하고 있다.

예를들면 이 理論에 따르면 經濟的 富國이 다른 富國에 對한  
行爲(富의 次元에서의 差가 極少)와 經濟後進國(富의 差가 크  
다)에 對한 行爲는 제각기 다른 樣相을 이루게 된다.

이 理論에서는 各國의 絶對的 屬性이 아니라 行爲 対象國과의  
屬性의 差가 行爲決定의 要諦가 되게 되므로 한 시스템內的 各  
國間의 屬性比較가 그 國家들의 對外行爲分析의 前提가 된다.  
社会場理論은 모든 屬性을 함께 고려하여 國家群이 이루는 場의  
狀態를 規定하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行爲를 分析하려 하기  
때문에 從來의 理論들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綜合的인 分析的 視覺  
을 우리에게 준다는 점에서 새롭으나, 反面 理論自体가 高度로 技  
術的인 形態로 構成되어 있고 다루는 變數가 너무 많아 電算機의  
도움 없이는 應用하기 어렵다는 弱點이 있다.

##### 5) 政策目標와 政策遂行能力分析

가장 普遍的이고 常識的이면서 가장 손쉽게 事態를 把握하게  
하여주는 分析方法으로는 關係國들의 政策目標分析과 政策遂行能力評  
價方法을 들수 있다. 現 國際政治시스템에서는 主된 行爲者가 國

家들이고, 그 行爲들은 國家單位로 이루어지는데 國家를 擬人化하여 생각한다면 그 國家의 追求하는 目標과 그 遂行能力을 分析한다면 大體로 그 國家가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推理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常識이다. 行爲란 意志와 그 意志의 實現을 爲하여 취하는 一連의 行動들의 集合이라 한다면 國家의 意志인 政策目標을 確認하고 그 實現能力을 評價해야 함은 오히려 當然하다. 다만 政策이란 狀況에 따라 變化하고, 能力도 相對的인 것이므로 時間과 狀況에 따라 變하는 것이며, 그 變化하는 樣相을 미리 予測하기 困難하다는 點에서 國際政治分析에 있어서 政策分析과 能力評價만이 唯一의 道具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가장 基本이 되는 分析임엔 틀림없다.

政策分析에서 問題되는 것은 公表한 意思와 實際意思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眞意'를 포착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意思의 強度를 判定하는 일이며, 한 國家의 政策遂行能力評價는 어떤 變數로 재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問題된다. 能力엔 여러가지가 있다. 産業生産能力, 人口, 教育水準, 資源등은 潛在国力에 該當되나 核攻擊能力, 陸海空軍等の 兵力등은 當장 戰爭能力이 된다. 어떤 경우에 어떤 變數로 眞 国力이 意味가 있는가를 判定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2. 南北韓關係가 國際情勢에 影響을 받을 理由

韓半島가 太平洋북편에 位置하였다면 아마도 우리의 南北關係가 強大國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南北關係가 國際情

勢에 直接的인 影響을 받는 理由는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때문이다. 韓國이나 北韓의 힘이 월등히 우월했다면 南北關係는 지금처럼 國際情勢의 影響을 強하게 받지 않았을 것이다. 韓半島의 南北關係는 全 地域的인 國際政治시스템의 하나의 亞시스템( Sub System )을 이루고 따라서 南北關係의 環境的 맥락( environmental context )을 이루는 國際政治시스템의 狀況에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지 마는, 만일 우리의 힘이 두드러지게 強했다면 亞시스템 優越( Subsystem dominance )의 상태를 이루어 南北關係의 變遷이 國際政治시스템에 影響을 주는바가 큰 대신 國際情勢가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은 적었을 것이다. 韓國과 北韓의 힘의 相對的 弱勢가 南北關係의 國際政治에의 從屬度를 높혀주고 있다.

이런 뜻에서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를 간략히 再吟味해 보고 韓國의 周圍強大國과의 힘의 比較를 몇個의 指數를 들어 行해 보기로 한다.

#### 1)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

韓半島는 6個核保有國( 印度包含 )중 2個國 즉 中共과 蘇聯과 國境을 接하고 있고, 世界 第3位의 經濟大國인 日本과는 海峽 하나를 隔해 接하고 있으며, 世界最大의 軍事 및 經濟大國인 美國의 西太平洋 前進基地를 國土안에 두고 있다. 뿐만아니라 韓半島의 位置는 蘇聯의 太平洋出口에 있으며 中共과 日本사이의 交通路에 있다. 中共, 蘇聯, 日本 및 美國이 포위하고 있는 이 地域内에는 韓半島外에는 다른나라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도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韓半島는 위에서 言及한 四大強國中 그 어느나라의 独占的 支配權 下에 들어가도 다른 三大強國에게는 重大한 威脅이 될 수 있는 位置에 놓여 있다. 蘇聯이 韓半島를 支配하는 경우 中共의 心臟 部를 포위하는 結果가 되고 中共과 日本의 交通을 차단할 수 있는 形勢가 되고 美國의 極東政治參與의 교두보를 除去하는 結果가 된다. 中共이 韓半島를 支配하는 경우, 蘇聯은 太平洋에의 出口가 차단되며, 中共과 日本은 직접 완충지대 없는 對峙를 하게 되고, 美國은 역시 極東에서의 교두보를 잃게 된다. 日本이 韓半島를 차지하는 경우는 中共은 심장부가 日本에 직접 노출되며, 蘇聯은 日本에 依해 太平洋進出은 完全 封鎖당한다. 美國이 韓半島의 唯一의 支配者가 되는 경우 나머지 三國은 美國의 牽制를 받게 되어 行動에 極히 制限을 받게 된다. 즉, 美國이 同意하지 않는 相互協 調는 직접적인 방해를 받게 된다. 美國의 韓半島의 独占的 支配는 美國에게 極東의 勢力均衡에서 均衡者의 位置를 確保해 주는 有利한 基礎條件을 充足시켜 주게 된다. 이와같은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는 美·蘇·中共·日本의 四大強國에게 있어서 關心을 안가질 수 없도록 해주고 있다.

## 2) 韓國의 相對的 힘

韓國의 힘을 国力測定에 자주 使用하는 主要變數를 基準으로 周圍 四大強國과 比較하면 表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은 周圍四大強國과의 힘의 比較에서 그 격차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弱勢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중에서 努力에 依하여 變更改할 수 있는 GNP의 경우만 하더라도 10배내지 100배의 差가 있고 보면 當분간 힘의 差異에서 올 強大國의 影響力的 배제는 어려우 리라는 판단이 선다.

〈表-1〉 韓國과 周圍四大強國과의 힘의 比較

變數 變數 類型	變數	韓 國			美 國	蘇 聯	中 共	日 本	備 考
		全韓半島	韓 國	北 傀					
潛 在 國 力	面 積 (km <sup>2</sup> )	220,817	98,447	122,370	9,363,387	22,403,000	9,761,012	380,000	
	人 口 (萬名)	4,767	3,267	1,500	21,090	25,050	약 80,000	10,700	1973 年 기준
	GNP (\$×10 <sup>8</sup> )	(128)	93	35	11,518	4,390	약 1,200	3,168	1972 年 기준
軍 事 力	총 병력 (×10.9)		634	470	2,253	3,425	약 2,800	266	1973 年
	국방비 (\$×10 <sup>6</sup> )		476	620	85,200	91,000	10,000~12,000	3,530	1973 年
	전투항공기대 수		195	598	5,750	8,250	3,800	386	1973 年
	유 도 탄 (1) IRBM & ICBM		-	-	1,054	1,527	70	-	1973 年
	유 도 탄 (2) SLBM		-	-	656	628	-	-	1973 年

Source: 英國戰略問題研究所刊, The Military Balance 및 桂濟企劃院刊 韓國統計年鑑, 1973.

## II. 七十年代的 國際政治시스템 :

### 極化의 意味

第二次 世界大戰 이후 20余年間 存統해온 美·蘇의 두 超大 強國을 核으로 하는 兩極體制 (Bipolar International System) 는 1970年을 前後에서 多極體制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로 시스템變型 (System transformation) 을 이뤘다고 한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는 어떤 具體的인 狀況變化를 뜻하는 것이며, 우리의 南北關係에는 어떤 意味를 주는 것인가를 간략하게 再吟味해 보기로 한다.

#### 1. 兩極體制와 多極體制

兩極體制 (Bipolar international system) 란 全世界의 國家가 두個의 對立하는 超大強國을 極으로 하는 「블럭」 (Bloc) 으로 나뉘어 「블럭」간에는 對決, 그리고 「블럭」 内部에서는 極國家와 稱成員 國家間의 位階的 同盟關係가 成立되어 있는 國際秩序를 말한다. 따라서 兩極體制는 「블럭」間의 對決 (inter-bloc confrontation) 과 「블럭」内部的 結束 (intra-bloc cohesion) 라는 두개의 側面에서 그 特色이 파악된다.

兩極體制는 理論上으로는 對決하는 블럭외의 第三 國家群이 存在하지 않는 "딱딱한 兩極體制" (tight bipolar system) 과 第三國 및 超國家的 組織의 域이 남아있는 "느슨한 兩極體制" (loose bipolar system) 으로 나뉜다<sup>註14</sup>), 두 超大強國 中心의 블럭間 對立과 블럭內 余他國家의 獨自外交制限이라는 點에서

는 大同小異하다.

兩極體制을 블럭間 對決이라는 點에서 파악될 때 그것을 向外的 兩極性( extensive bipolarity )라 하고 블럭内部에서의 超大 強國과 構成員 國家사이의 位階的 同盟關係를 主軸으로 하는 團結 에서 파악될 때 向內的 兩極性( intensive bipolarity )라고 부 른다. 註15)

두 超大強國 周辺에 余他國家들이 集結되어 있는 兩極的 均衡 狀態에서는 超大強國외의 國家들은 最少限의 外交的 選擇밖에 가 질수 없다. 兩極的 均衡( bipolar balance )에서는 從屬國家들 의 部分的 離脫도 均衡을 깨게 되므로 各 블럭内部의 結束은 安 保의 絶對的 要件이 된다. 따라서 超大強國은 조그마한 國家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예민한 反應을 일으키며 직접 事態에 介入하 려 들게된다. 兩極均衡은 끊임없는 對決과 危機의 연속이다. 註16)

兩極體制의 向內的 側面에서 두드러지는 特色은 同盟關係構築에 처한 非常한 關心이다. 同盟關係의 確保는 敵對國과의 前線構築, 確保된 自己領域을 유지하기 爲하여 干涉할 수 있는 法的根拠의 확보, 그리고 自國의 防衛能力에의 힘의 보탬등 세가지 目的을 充 足시켜 주기 때문에 註17) 特히 美國은 同盟關係樹立에 非常한 努 力을 기울였었다.

多極體制(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는 文字 그대로 独自の 外交를 行할 수 있는 三國 以上の 強國이 存在하는 시 스템이다. 多極體制에서는 늘어난 極의 存在때문에 極間的 關係가 複雜해져서 兩極體制에서와 같은 過敏의 對決은 없어진다. 極과

極사이에는 幅넓은 親和 및 敵對關係가 形成될 수 있기 때문에 均衡은 블럭間의 正確한 勢力均衡點이 아닌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國際政治시스템이 언제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 넘어갔는가 하는 것은 判定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새로운 極의 形成이 한 時点에서 突然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大体로 위험스러웠던 極端의 兩極體制가 存続되었던 時期를 1947年부터 古巴事態가 있었던 1962년까지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註18)

古巴事態에서 美·蘇 兩國이 느낀 危機意識이 열매맺은 1963年의 制限 核實驗 禁止條約이후 「블럭」間의 極端적인 對決은 完化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963년부터 多極體制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 當時는 美·蘇 이외의 뚜렷한 極이 없었기 때문이다. 世界 主要國家들은 如前히 美·蘇를 中心으로 모여 있었었다. 다만 이때부터는 兩超大強國間의 緊張緩和를 틈타 一般國家들은 서서히 「블럭」너머의 나라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으며 블럭內의 同盟關係도 從來의 超大強國 中心의 放射狀形態에서 橫的인 關係로 轉移되었다. 이러한 뜻에서 1963年 이후의 國際政治秩序를 「兩陣營 多中心體制」( Bipoly Centricism )이라고 부르는 學者도 있다. 註19)

美·蘇가 唯二의 超大強國으로 그 두나라의 核均衡이 安保의 要諦인 點에서는 兩極體制와 같으나 兩超大強國間의 「恐怖의 均衡」이 가져온 교착상태에서 群少國家들이 서서히 外交的 獨立을 회복하여 스스로가 政策의 中心이 되어가는 狀態라는것을 나타내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多極体制의 序幕은 1969年 7月의 「닉슨」(Nixon) 美大統領의 「괌」(Guam) 宣言부터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宣言에서 美國은 自己의 盟邦에 「自立」과 「自助」를 許容하여 兩極体制의 向內的 屬性인 位階的 同盟關係의 解除를 公式化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70年 2月 18日에 발표한 特別敍書에서 協商을 통한 國際緊張緩和를 촉구함으로써 블럭間 對決이라는 兩極体制의 向外的 屬性마저 없어졌음을 밝히고 나아가 中共 및 日本의 独自の 役割을 示唆함으로써 새로운 極의 登場을 確認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所謂 多極時代는 70年代와 더불어 展開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2. 多極化의 諸原因

多極体制의 形成原因으로는 核對決의 교착상태의 持續이 가져온 美·蘇의 막대한 犠牲과 負擔, 日本, 西獨 등의 새로운 經濟大國의 出現, 中·蘇 理念紛爭이 빚은 中共의 主体的 外交路線 및 美·蘇의 核武器 独占의 終熄등을 들 수 있다.

美·蘇의 核對決은 對決의 強度가 弱화된 70年代에 들어와서도 双方에 각각 800 내지는 900億弗의 國防費 支出을 強要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 對決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좋을 第3國에의 援助등을 포함한다면 그 犠牲은 世界 最強의 나라에도 감당하기 벅찬일이 된다. 이러한 犠牲의 無謀함을 認知하고 서서히 負擔을 주려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1956年의 「후르시초프」(Khrushchev)의 平和共存 提案에서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註20)</sup>

兩極体制의 礎石은 「블럭」内の 統制에 있다. 이러한 統制의 條件은 極國家의 超越的 힘에 있다. 極國家의 힘의 独占이 깨어지는때 블럭内の 位階的 同盟關係를 바탕으로 하는 結束은 흔들릴수 밖에 없었다. 美國陣營의 경우 英·仏의 核武器 保有는, NATO 体制를 變質시켜온 重要한 要素였으며 日本과 西獨의 經濟的 大國으로의 成長은 美國의 超越的 地位를 견지할 수 없는 「現實」을 이루어 놓았다. 1972年度의 美國과 日本의 GNP는 각각 1兆1千518億弗과 3千168億弗이었다. 즉 人口가 美國의 약 2分之1인 日本이 GNP에 있어서 3分之1 水準까지 成長했었다. 이런 狀況에서는 美國도 制限된 범위에서나마 日本의 獨自的 外交를 容認하지 않을수 없었다. 日本과 歐洲는 새로운 亞極 (Sub pole)로 굳어져 가고 있다.

蘇聯陣營의 경우, 中·蘇紛爭이 블럭內 結束을 깨는 가장 큰 原因이 되었다. 中共은 1964年의 첫 核實驗이후 1974년까지 16회의 實驗을 해온 核國으로 成長했고, GNP에 있어서도 1972年 현재 蘇의 약 4分之1 水準까지 올라섰다. 이러한 中共의 反旗는 蘇聯의 極的 位置를 決定的으로 흔들어 놓았다. 中共은 蘇陣營에서 버금가는 極을 이루는 정도를 벗어나 完全한 地位를 굳혀 버렸다.

이와 같이 國際政治시스템의 多極化는 美·蘇의 政策變更에서 왔다가 보다는 시스템內部的 變化로 因해 不可避하게 到來한 歷史的 現實이라고 볼수 있다.

### 3. 多極化가 意味하는 것

多極化된 國際政治 시스템의 가장 重要한 二個의 特徵은 「블럭」間的 對決의 弱화와 一般國家들의 外交的 自立이라고 할 수 있다. 對決의 弱화는 블럭境界를 넘나드는 國家間的 協助와 블럭間 對決의 焦點이던 理念的 相克性보다는 自國의 實利가 外交政策에 앞서서 外交政策의 理念的 無色性을 惹起시켰다. 그리고 各國의 外交 自主化는 國家間的 편파적 協助를 打破하고 事態에 剛應하는 유연한 同盟關係의 可能性을 높혀주었다. 「自國所屬 블럭의 盟主의 敵은 自國의 敵」이라던 兩極體制下의 等式대신 敵과 同志를 區別하는 기준을 自國의 實利에서 찾는 「自然狀態」의 外交로 환원되어 가고 있다.

### 4. 多極化 現象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多極化의 進行은 韓國에 두가지 條件變化를 가져다 주고 있다.

첫째로는 獨自的 外交를 可能하게 해주는 「外交的 解放」이다. 이제 韓國은 「美國의 敵」즉 韓國의 敵」이라고 받아드려야 할 義務도 없고 美國의 意思에 反하는 對外接觸도 可能해졌다.

둘째로는 獨自的 外交의 責任이다. 兩極體制下에서는 韓國은 어떤 뜻에서는 外交가 필요 없었다. 美國의 盟邦으로 남아있는 限 美國陣營의 모든 나라의 自動的인 支持를 받을 수 있었다. 安保問題에 있어서도 韓國의 安保는 곧 美國의 安保였으므로 獨自的인 安保責任을 지지 않아도 좋았었다. 그러나 美·蘇間의

對決의 후퇴는 이러한 自動的 安保連繫를 弱化시켰다. 韓國의 安保가 곧 美國의 安保로 연결되지 않는다. 韓國의 安保가 美國 自体의 安保였던 것이 이제는 美國의 한 「利害狀況」으로 變質된 것이다. 한마디로 韓國은 自由와 責任을 함께 되찾은 셈이다. 한국에 있어서 이제는 對美關係도 「外交의 對象」이 되어가고 있다.

### Ⅲ. 70年代의 「유토피어니즘」과 「리얼리즘」: 極東四大強國들은 무엇을 願하는가?

#### 1. 強大國들이 원하는 理想的 秩序

各國의 外交政策에는 모두 理想主義 (Utopianism) 的 要素와 現實主義 (Realism) 的 要素가 포함되어 있다. 政治는 人間의 꿈을 設定하고 그 꿈을 實現하려는 人間行爲인 同時에, 한편 現實의 주어진 條件속에서 當面하는 그때 그때의 問題들을 解決하는 技術 이기 때문에 未來의 꿈을 開拓하려는 「理想의 域」 즉 「當面의 域」과 現在의 구체적 行爲選擇을 決定해야 한다는 「可能의 域」 즉 「存在의 힘」사이를 끊임없이 往來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當然하다.

各國外交政策을 이러한 理想主義的 要素와 現實的 利害의 複合이 라고 보는 視角에서 우선 極東에 직접적인 利害關係를 가진 美· 蘇· 日· 中共의 4大強國의 外交政策을 그 理想主義 要素를 中心으로 밝혀 보기로 한다.

#### 1) 美國의 外交政策 目標

美國의 新任國務長官 「키신저」 (Henry Kissinger) 는 최근 「美國은 단순한 休戰이 아닌 眞실한 平和를 추구할 것이며, 法이 지배하는 세계를 위해 노력하고 制度化된 평화가 美國外交政策의 精神」이라고 公言하였다. (1973年 9月24日에 行한 UN 總 會서의 演說). 이어서 「키신저」는 「安定이 단순한 힘의 均衡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熱望위에서는 그러한 平和를 추구하

졌다"고 말하면서, "어느 특정 國民이나 집단이나 또는 이데올로기에만 特有한 진실이 아닌 보편적(Universal)인 진실이 存在한다고 믿고 이런 정신으로 和解에서 協同으로 그리고 共存에서 共同社會로 움직여 나가자"고 主唱하였다.

「카아」(E.H.Carr)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유토피언」은 세계를 위해 最善이 되는 것은 自國을 위해서도 最善이 된다고 믿고 반대로 自國에 있어서의 最善은 世界의 最善과 相通한다고 믿는다. 註21) 戰後 美國外交에 있어서 강하게 나타난 自由民主主義의 보편적인 善性에 대한 믿음, 즉 美國서 實証된 自由民主主義의 平和秩序構築에 대한 기여를 저울삼아 自由民主主義를 국제사회에 펴므로써 세계에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수립하여 보겠다는 信念은 미국의 「유토피어리즘」의 근간을 이루었고, 그것이 4半世紀가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不変이라는 것을 「키신저」는 「安定이 公同된 熱望위에서는 平和」란 말로 再確認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키신저」는 人類의 公同된 熱望이 自由民主主義 秩序라고 못 박지않고 "어느 특정국민이나 집단이나 이데올로기에 特有한 진실이 아닌 보편적 진실"이라고 後退한 點으로 보아 冷戰 初期에 진하던 「유토피어리즘」적 要素는 대부분 사그라졌고, 대신 현실타협의 강한 「뉴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데올로기를 超越한 公同된 熱望은 무엇을 말하는가?

核戰의 人類文明 滅絶의 위협속에서는 바로 核戰으로 부터의 회피가 現時點서 確認될 수 있는 唯一의 人類共通熱望이란 點을 인정한다면, 이는 곧 美國의 원래의 「유토피어리즘」의 熱望의 拋

棄를 意味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自由民主主義의 宣敎的 立場을 拋棄하고 이데올로기의 對立을 幕後로 돌리자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70年代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에서의 「유투외어니즘」의 要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1960年代 美國의 對亞政策은 그 前時代의 遺物인 冷戰的 對決의 延長이었다. 酷評을 한다면, 現實은 이미 脫冷戰期로 접어들었는데 政策은 變質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50年代의 「大量報復」(Massive retaliation) 戰略에서 「融通性있는 対応」(flexible response)로 戰略이 바뀌었지만 共產主義의 膨脹을 저지해야 하고, 西太平洋변방에 構築되어 있는 美國의 前哨同盟시스템에 對한 공격은 곧 美國의 安保에 직결된다고 믿었던 點에서 는 그 前時代와 다를 바 없었다. 中共과의 계속된 교착상태, 越南戰, 日本과의 同盟固守등은 모두 이런 政策의 反映이었다. 註22)

1969年과 1970年初에 발표된 一連의 聲明을 통하여 公表된 이른 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은 바로 새로운 現實의 수증과 거기에 對應하는 美國의 對亞政策變更을 뜻한다.

「닉슨·독트린」의 要旨는 ① 통상병력의 減縮 및 核치중, ② 過剩公約의 정리 ③ 아시아의 自助와 自立 ④ 中共에 對한 긴장완화였다. 註23)

1970年代의 美國의 對아세아政策은 바로 이런 「닉슨·독트린」의 實現이 될 것이다. 越南戰은 종식되었고, 中共과의 歷史的 和解도 1972年에 實行하였다.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減軍은 이미 進行되고 있다.

1970年代의 美國의 對亞政策의 基調를 이루는 생각은 무엇일까?  
「닉슨·독트린」의 暗示에서 결론을 찾는다면, 그것은 蘇·中共·  
日本의 삼국간의 勢力均衡을 통한 安定의 維持이며, 美國은 그 均  
衡의 均衡者(Balancer)로 남으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前 美國國家安保會議 委員이었던 「오스굿」(Osgood) 교수가  
最近의 日本訪問에서 強調한 對日 非軍事的 協力<sup>註24)</sup>도 그리고  
對中共, 對蘇 等거리外交의 固守도 모두 이런 計劃의 反映이라고  
볼 수 있다.

## 2) 蘇聯의 對極東外交政策 目標

1970年代에 蘇聯이 極東에서 추구하려는 外交的 理想은  
무엇까? 論理的 귀결은 간단하다. 그것은 「中共의 蘇聯化」가  
上限이고 「中共의 牽制」가 그 下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蘇聯外交에서 「世界赤化」라는 「유토피어리즘」的 要素는 東北아  
시아에서는 적어도 1953年の 韓國戰休戰을 계기로 後線으로 물러  
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탈린」(Stalin) 死後의 蘇聯은  
内部的으로도 強力한 革命的 「슬로건」은 退潮를 보였고, 이 경향  
은 國際情勢가 革命輸出을 現實적으로 不可能하게 하는 상태와 相  
乘作用을 벌여 外交政策에서의 「유토피어리즘」的 要素를 弱화시켰  
다. 1960年代에 와서는 中共과의 理念紛爭이라는 미묘한 사태로  
새로운 國家의 共產化에 앞서 共產化된 地域의 蘇聯化에 더욱 중  
점을 두게 됨으로써 蘇聯의 對주동외교정책에서의 「유토피어리즘」은  
더욱 둔화되었다. <sup>註25)</sup>



極東에 있어서 蘇聯의 가장 큰 關心은 對中共關係이다.

1963年의 폭발적인 理念鬭爭論戰<sup>註26)</sup> 이후 中·蘇의 和解는 적어도 中共의 현재의 指導體制에 革命的 變質이 생기지 않는限 不可能하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思想的 內容의 接近으로 和解는 이루어 질 수 없고 物理的 牽制, 他國과의 協助에 의한 政治的 牽制밖에는 對決의 方法이 남지 않는다.

이런 事態下에서는 蘇聯은 「유토피어니즘」的인 共產化運動은 추진할 형편이 못된다. 사상적인 要素를 뒤로 제치고 事態수습에 전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思想을 超越한 타협과 和解도 許容하는 폭 넓은 戰略의 採択을 意味한다.

### 3) 中共의 外交政策 目標

가장 「유토피어니즘」的이던 中共의 對外政策 基調는 中共外交의 初期(1949~1953)의 「人民解放戰爭支援」이 蘇聯과의 同調로 活氣를 띄고 展開되던 때를 除外하고는 그후 다분히 온건해졌었다. (熱戰 회피라는 뜻에서). 1954年 4월에 發表된 유명한 「平和5原則」<sup>註27)</sup>을 고비로 새로 시작된 中共外交의 第2段階(1954~1957前半)에서는 中共은 平和的 手段에 의한 世界革命 展開가 그 基調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中共의 「유토피어니즘」은 그 이후도 繼續 끈질기게 中共外交를 이끌어 왔는데, 아마도 歷史上 가장 투철한 外交政策上的 유토피어니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中共의 理念的 使命意識은 中·蘇理念紛爭이 表面화된 1960年

以後에는 「世界共産化」에서 「毛思想에 依한 世界赤化」로 内容이 수정되었다든지 또, 文化革命期(1967 ~ 1970年)을 통하여 強度가 다소 弱화되었다든지 하는 起伏은 있었어도 世界の 社会化와 反帝國主義, 反植民主義運動을 통한 외압박민족의 人民解放鬪爭을 支援한다는 基調에는 變함이 없다. 註28)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열리기 시작한 和解時代에 있어서도 中共과 美國이 재접근했다 해서 中共의 「유토펬어니즘」의 要素가 없어졌다고 믿는다면 誤算이다.

中·美의 關係改善은 中共의 「切迫한 現實的 必要」와 「長期的 戰略」에 대한 고려와 美國이 理念的의 差를 不問하겠다는 政策的 後退의 聯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中共의 「유토펬어니즘」의 要素의 退色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注視할 必要가 있다. 다만, 中國共産主義가 傳統的 中國思想의 색채가 밑바닥에 짙게 깔려있어 맑스-레닌 이름의 劃一性에 비해 包容性, 融通性이 커서 一見 부드러워 보이는 點에서 中共은 非유토펬어니즘的이라고 評價되는 수가 있기는 하나 이것을 中共의 歷史的 使命感의 포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註29)

1970年의 中共의 對美和解는 對蘇紛爭의 結果로 빚어진 安保上의 現實的 必要와 對美和解를 통한 유엔加入은 국제무대에서의 進出을 쉽게 해주고 또 그것은 第3세계에서 中共이 政策遂行을 하는데 편의를 주리라는 長期的 戰略上의 判斷에서 나온 和解(detente)이지 결코 폭 넓은 親知關係를 수립하려는 「앙팡뜨」(entente)가 아니었음을 注視하여야 한다.

現在 中共에게는 蘇聯만한 安保上的 威脅的 存在가 있을 수 없다. 世界 最長의 國境線에서 世界最強의 陸軍과 世界 第2의 核 攻擊 能力을 함께 갖춘 蘇聯과 熱戰化할 수 있는 紛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中共으로서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부담이 아닐 수 없다. 註30) 이런 威脅 아래서는 中共은 국제무대에서 所 信의 政策을 띄울 餘유가 생겨나지 않는다. 現實的인 救援을 唯一의 國家인 美國과 일단 타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中共은 또한 日本의 위치를 意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對美強硬路線을 見旨하면서 日本과의 接近을 한다는 것은 現實的 으로 不可能한 것이고 보면, 世界 第3位의 經濟力을 바탕으로 極 東의 門前에 앉아있는 日本과의 最小限의 和解를 생각해서라도 對 美和解는 不可避했다고 본다. 그리고 第3世界에의 進出을 생각해서도 넘어야할 최초의 징검다리가 美國의 「블록킹」이고 보면 中共으로서는 피할 수 없었던 회랑이 對美和解였을 것이다.

中共은 1970年代에 있어서 아시아, 특히 極東에서 自己의 外交 政策基調의 變色없이 蘇聯의 威脅에서 自己를 지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目標일 것이다.

中共은 1970年代에 있어서 能動的인 革命輸出은 삼가고 現状維持에 最善을 다할 公算이 크다.

#### 4) 日本의 外交政策目標

1970年代에 들어선 日本은 經濟的인 힘과 潛在的 軍事力 으로 아주 重要한 影響을 行使할 수 있는 地位에 올라서 있다.

이러한 日本이 極東에서 무엇을 願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1973年 7月 31日에 열렸던 美·日 워싱턴頂上會談은 지금까지의 冷戰體制속에서 美國의 「주니어·파트너」였던 日本이 독립된 국제 무대에서의 成年強大國으로 公認받던 회담이었다. 이날 「닉슨」(Nixon) 美大統領은 「다나카」(田中角榮) 日本 首相을 맞이하는 환영연설에서 「세상은 쪼뼛다. ....오늘 귀하의 래방은 過去의 關係(즉 美와 日의 「시니어-주니어·파트너」關係)에 중언을 고하고, 太平洋뿐 아니라 全世界에 있어서의 協助에 있어서 同等한 파트너 關係의 開始를 期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언했다.

「닉슨」은 덧붙여 「美·日의 反諷과 協力은 太平洋에서의 平和維持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世界의 平和와 繁榮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強調했다.

이에 答하여 「다나카」 日本 首相은 「太平洋의 問題들 뿐 아니라 大西洋의 問題들에 대해서도 「닉슨」大統領과 意見 交換하기를 원한다」고 宣言함으로써 名實共に 日本의 世界的 強國으로서의 發言權을 主張했다.

「갈통」(Johan Galtung) 教授가 「日本은 輸出할 思想은 없으나 輸出할 能力은 있는 反面, 中共은 毛思想이라는 輸出商品은 있어도 그걸 輸出할 能力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드시 (1973年 3月 美하와이大서의 講演), 日本은 어떤 「이즘」을 世界에 波及시키려는 「메시아」的 使命感도 없다. 日本은 아시아에 있어서 이루어려고 하는 어떤 유토피어니즘의 理想도 具體화된 計劃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 日本은 自己가 繁榮할 수 있는 秩序만 이루어 친다면, 그것이 如何한 것이든지 취하려는 現實的인 理由에서만 自己位置를 主張 하리라고 본다.

日本의 이러한 思想的 倫理的 無色性은 極東情勢를 決定하는데 있어 아주 큰 變化要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無色性 이야말로 카드놀이서의 「조커」같은 위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日本의 政策決定者들이 이런 點에 着眼하여 고의로 日本外交의 思想的 倫理的 無色性을 強調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註31)

#### 5) 強大國 外交政策 目標의 綜合分析

이상에서 論한 4大強國의 外交政策 目標를 요약한다면, 어떤 結論이 될까?

美國은 自由民主主義의 더 넓은 普及을 위해 모험하지 않을 것이다. 蘇聯은 새로운 나라의 共產化를 위해 犧牲的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 分明하다. 中共은 無視할 수 없는 현실 与件 때문에 人民解放鬪爭을 더 以上 밀고가지 못할 것이다. 日本은 特別히 봐라는 어떤 價值體系에 依한 秩序確立도 当初부터 構想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970年代의 極東에 있어서는 어떤 強大國도 自己理想 實現을 위한 體制改編을 위해 努力하지 않을 것이다.

#### 2. 強大國들의 現實的 利益

理想追求를 위한 體制改編이 없다면 強大國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現實的 利益을 追求할 것인가?

### 1) 美國의 利益

美國은 다른 3個強大國에 比해 좀 特殊한 立場에 있다. 美國은 極東에서의 利害가 다른 3強國처럼 直接的이 아니다. 美國의 利益은 極東 三強의 關係에서 생겨질 수 있는 힘의 再編에서 自國安保에 나쁜 影響을 줄 事態防止에 利益을 느낄 뿐이다. 즉 美國이 追求하는 現實的 利益은 蘇·中共·日의 三國間에 形成될 勢力均衡에서 均衡者의 役割 (Balancer's role)을 가짐으로써 極東의 安定을 스스로 確保 調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는 것이다.

### 2) 蘇聯의 利害

蘇聯은 中共을 牽制하는 地位를 確保하는 어떤 均衡點에서 事態를 굳히고 싶어 할 것이 明白하다.

日本과 中共의 密着은 蘇聯의 地位를 결정적으로 弱化시킬 것이기 때문에 蘇聯은 日本과 關係改善을 繼續 推進하려 할 것이며, 中共과 日本 사이에 位置한 韓半島가 中共이나 日本의 獨占的 支配에 들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趨勢가 보이면 直接 介入을 할 만한 의지가 있다고 봄이 妥當하다.

### 3) 中共의 利害

中共은 蘇聯과 日本의 연합에 의한 포위망 형성을 방지하는 데는 危險을 무릅쓰고 抵抗할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中共의 바깥 世界와의 道路는 東南쪽 바다뿐이다. 만일 蘇聯과 日本의 포위망이 構築된다면 中共은 致命的인 被害를 입게 된다.

가상적인 蘇·日 포위망의 未完成部分인 韓國과 台灣이 蘇聯 또는 日本의 掌中에 들게 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中共은 민감하고도 강력한 反應을 보일 것이다.

#### 4) 日本의 現實的 利益

日本의 立場은 미묘하다. 新參者의 立場에서 美國의 원호를 뒤에 업고 登場한 日本은 自己가 차지해야 할 몫을 다른 三大強國의 既得部分에서 떼어 내야 할 立場이므로 다른 三大強國 사이를 比較的 自由롭게 往來하면서 自國의 影響力을 極大化하려 할 것이다. 日本이 繼續 主唱하는 소위 「等距離外交」가 이러한 意圖의 表現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現在로서는 美國의 既存拠点을 일부 이양받아 極東政治에 더딤들을 구축하고 있으나, 어느 시기에 가서 日本이 要求하는 몫이 美國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게 되면 日本의 움직임은 다른 軌道로 변지기 시작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더구나 中共과 蘇聯이 對決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日本은 훨씬 自由로운 方向調整 幅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의 極東의 體制에 어떤 變質이 있다면, 日本의 이러한 動的要素가 그 큰 原因이 될 것이다.

#### 5) 現實的 利益의 總和

強大國들의 理想的인 外交目標에서는 現存하는 極東의 政治 秩序 改觀 要因을 못 찾아지만, 強大國들의 現實的인 利益에서는

動的 要因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日本의 向方이다. 日本은 現在의 国力에 비해 相應하는 發言權을 行使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註 32)

이러한 日本이 더 큰 몫을 要求할때 그것은 어떤 方向으로든 現存體制가 改編되어야 함을 뜻한다.



#### IV. 極東四強의 國力評價 : 強大國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國家를 個人에 비유한다면 그 國家의 外交目標은 곧 意志이고, 國力은 그 意志의 實踐能力이다. 어떠한 政策도 그 政策을 實踐에 옮길 수 있는 國力이 뒤따르지 않으면 無意味해진다.

國際政治分析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研究가 國力評價이다. 國際政治서 의미있는 國力은 相對的인 國力이다. 다른 國家에 비하여 強한가 弱한가? 얼마나 더 強한가 하는데 따라서 自國政策의 伸張度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國力の 測定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變數의 選定이다. 國家의 어떤 屬性이 그 나라의 國力の 根幹을 이루는 가는 解答을 구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註33) 이 論文에서는 간단히 潛在的 戰爭能力이 될 수 있는 人口, 國民總生産, 主要物資 生産量 및 에너지 生産량과 人口를 합쳐서 만든 國力測定指數 註34) 등으로 4大強國을 비교해 본후 전투能力을 評價하기 위해 國防豫算, 武装兵力總數 기타 主要武器의 保存狀況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 人 口

人口數는 한나라의 크기를 재는 가장 根本이 되는 指數이다. 個數는 그 나라의 勞動力과 兵力動員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人口에서 數字만이 重要한 것이 아니고 教育정도 年齡構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數字 그 自体가 가장 기초적인

測定値가 된다. 四大強國의 人口 推移를 美國 商務省 人口調查局 統計에 依하여 比較해 보면 表2와 같다.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기는 中共, 蘇聯, 美國, 日本 順이나 모두가 1970年 現在 1億을 넘는 大國들이다.

특히 中共의 8億人口는 어마어마한 武器로서, 世界 어느나라도 中共과의 陸戰을 생각 못하게 하여 주는 要因이 되고 있다.

## 2. 國民總生産(GNP)

共產國과 資本主義國家에서의 計算方法의 差, 中共의 統計의 不正確性 등으로 論難이 있을 수 있는 指數지만, 國家經濟規模를 대 체로 比較하기에 便한 點에서 國民總生産(GNP)을 들어 四大強國을 比較한다. (表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年의 GNP 規模로 보면 日本과 蘇聯이 比等하고 美國은 이들의 約 3倍, 그리고 中共은 거꾸로 約 3分1의 規模다. 그리고 中共과 美國의 比는 약 1대10 정도다. 經濟力에서만 본다면 中共은 아직 다른 三大強國에 比해 強國이라고 부르기 어려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美國과 日本과의 격차는 좁아지고, 日本과 中共의 差는 훨씬 더 커지고, 蘇聯과 中共의 差도 훨씬 더 커지리라는 豫想이다. 經濟大國으로 成長하는 日本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表3의 GNP 推移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經濟規模에 관한 中共은 競爭에서 탈락, 三強體制가 形成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表 2>

美・蘇・中・日 의 人口推移

单位：百万(×10<sup>6</sup>)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美国	140.5	152.3	165.9	180.7	194.6	206.0	219.4*
蘇聯	175.0	180.1	196.1	214.2	230.6	242.5	254.6*
中共	510	547	611	686	755	843 <sup>(註1)</sup> *	944*
日本	-	-	89.0**	93.8**	97.9**	103.7**	107.0 <sup>(註2)</sup>

\* 推計

\*\* 美国 하와이大国家次元研究所 Data

註1. 中共이 發表한 1970年度 人口調査結果는 697,260,000 이었다.

註2. 英国 戰略研究所의 1974年度 Data

<表 3>

美・蘇・中・日 의 国民總生産推移

\$×10<sup>8</sup> (億弗)

	1965 <sup>(1)</sup>	1969 <sup>(2)</sup>	1971 <sup>(3)</sup>	1972 <sup>(4)</sup>	1985 <sup>(5)</sup>	2000 <sup>(6)</sup>
美国	6,923	9,320	10,729	11,518	27,757	45,100
蘇聯	2,970	4,660	5,360	4,390	10,980	31,700
中共	600	-	750	1,200	1,701	9,610
日本	840	1,670	2,550	3,168	16,502	13,930

1) Herman Kahn, The Year 2000 (New York: Macmillan, 1968) p. 159 에서 수록

2) 3), 4). 英国戰略問題研究所刊. The Military Balance 에서 수록

5) 日本經濟研究所서 1971年에 發表한 豫測值, 朝日新聞社刊, The Pacific Rivals, 1971, p. 387 서 수록

6) 上記 Kahn, p. 159. 에 나타난 推計值

勿論, 앞에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GNP가 곧 나라의 對外影響力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中共을 經濟的으로도 大國視하는 一般常識은 고쳐야 할 것이다.

### 3. 主要物資生産量

国力은 곧 産業力이라고 할 만큼 現代戰은 物資生産에 依存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에너지生産과 鋼鉄生産은 国力의 기초가 된다. 에너지源인 石炭, 石油, 電氣와 鋼鉄生産量의 推移로서 四大強國을 비교하면 表-4와 같다.

이 表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美國과 蘇聯은 比等한 強國이고 日本이 急速度로 추적하고 있는 國家인데 比해 中共은 比較가 안되는 水準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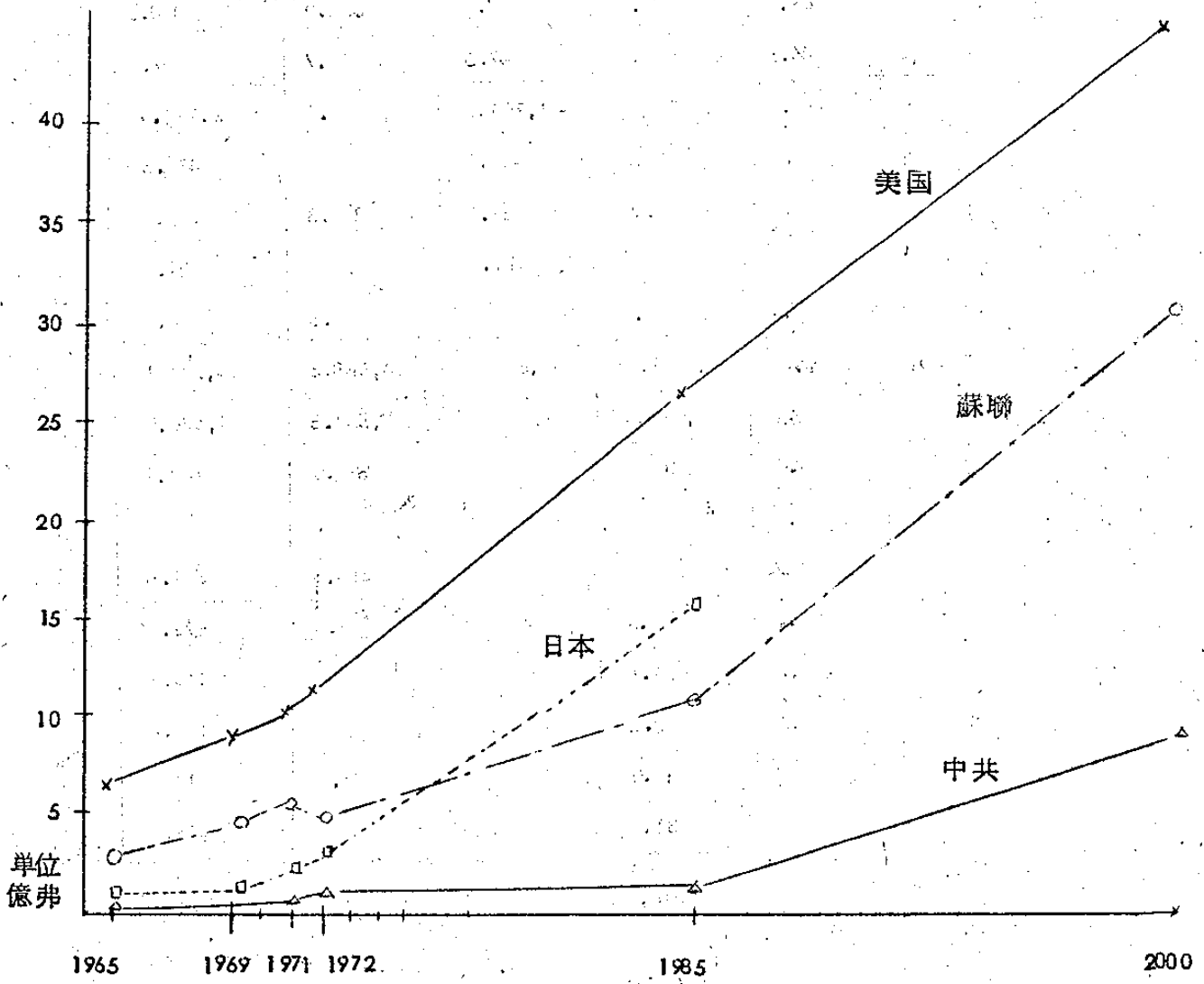
특히 注目할 것은 日本의 鋼鉄生産量이다. 1953年엔 美國의 15分之 1 정도이던 日本이 20년도 안된 1970年에는 美國과 맞먹고 있다. 軍수공업을 위시한 모든 工業이 鋼鉄生産量과 直結된다는 事實을 念頭에 두면 日本의 成長은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潛在国力測定値

한 國家의 戰爭能力을 合理的으로 測定하기 위하여 「콰이트」(Quincy Wright)는 工業生産力과 人口를 함께 포함하는 指數를 창안했는데 그는 에너지 總生産에 人口數를 곱한 것으로 定義했다.

그림 1

美·蘇·中·日의 GNP推移



〈表-4〉

美・蘇・中・日の 主要産品生産推移

物資	나라	1953	1963	1967	1969	1970
石炭 (百万 トン)	世界	1,491.1	1,923.6	1,949.3	2,063.8	2,126.0
	美国	440.3	430.5	508.4	513.4	541.6
	蘇聯	224.3	395.1	414.1	425.8	432.7
	中共	69.7	270.0	227.0	330.0	360.0
	日本	46.5	52.1	47.5	44.7	39.7
石油 (百万 トン)	世界	657.8	1,305.8	1,761.0	2,072.6	2,278.4
	美国	318.5	372.0	434.6	455.7	475.3
	蘇聯	52.8	206.1	288.1	328.3	352.6
	中共	.6	7.5	11.0	20.0	24.0
	日本	.3	.8	.8	.8	.8
電氣 (10億 KWH)	世界	1,264.1	2,848.8	3,860.8	4,568.3	4,901.1
	美国	514.2	1,011.4	1,317.3	1,552.8	1,638.0
	蘇聯	134.3	412.4	587.7	689.0	740.4
	中共	1) 7.3	2) 40.0			
	日本	55.7	160.2	244.9	316.3	359.5
粗鋼 (百万 トン)	世界	235.1	386.6	493.2	572.7	592.7
	美国	101.3	99.1	115.4	128.2	119.3
	蘇聯	38.1	80.2	102.2	110.3	115.9
	中共	1.8	12.0	11.0	16.0	17.0
	日本	7.7	31.5	62.2	82.2	93.3

Source=Frederick H.Hartmann, The Relations of Nations, 1972, pp.53-54. Table 3.

註1. 美国 中央情報部 推計 (1952年)

註2. 上同 (1965年)

表 5에 소개한 數値는 이 指數인데 計算方法에 있어서 에너지總  
量과 人口를 원래의 數字로 쓰지 않고 全 世界의 나라들의 數値  
의 標準편차로 나누어 준 數字에 각각 20을 더한후 곱셈한 것으  
로 美하와이 大學校 國家次元研究所의 計算値를 썼다. 註35)

이 指數에 依하면 美國 1位, 中共 2位, 蘇聯 3位, 그리고 日本  
이 最下位이다. 그리고 이中 美·中·蘇는 世界平均値에 비해 월  
등히 높은 數値를 보여 超強大國의 면목을 갖추고 있으나 日本은  
超大強國이라 하기 어렵다.

#### 5. 國防豫算

國防費의 規模는 그 나라의 軍備程度를 간접으로 나타내는  
重要한 指數다. 一般으로 經濟大國이 國防費도 많이 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國防豫算은 潛在國力을 戰鬪力으로 바꾸는 行  
爲이므로 여기에는 그 國家가 軍備를 갖추려는 意思가 가장  
잘 反映되고 있다. 政策樹立者들의 公言보다는 훨씬 더 正確한  
말을 수 있는 意思表示이기 때문에 軍備測定에 자주 活用되나 國  
防豫算自体가 비밀로 된 나라가 많아 信賴할 만한 情報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弱點이다. 表6은 앞서 소개한 美國 하와이  
大 國家次元研究所의 資料와 英國戰略問題研究所의 資料를 함께 참  
조하여 만든 것이다. 比較의 편의를 위하여 韓國과 北韓의 豫算  
을 함께 포함시켰다. 美·蘇의 角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나  
中共의 추적은 刮目할 만하다.

특히 中共의 경제형편 (表-3 참조)을 考慮하면, 1973年의

〈表 5〉

美・蘇・中・日의 潜在国力測定値\*

国名	1950	1955	1960	1963	1965
美 国	6,121	6,113	6,043	6,299	6,335
蘇 聯	-	5,005	5,225	5,485	5,578
中 共	-	5,331	6,065	5,975	6,054
日 本	-	4,159	4,159	4,188	4,185
世界平均	3,994.75	4,003.96	4,012.37	4,004.15	4,004.28

Source= Sang-Woo Rhee, et.al. Attributes of Nations:  
Data and Codes 1950-1965, Honolulu:Don. 1973

\* 潜在国力測定値 計算公式

$$E \times pp = \left( \frac{\text{에너지總生産量}}{\text{標準편차}} + 20 \right) \times \left( \frac{\text{總人口}}{\text{標準편차}} + 20 \right)$$

E = Energ Production (Metric ton)

pp = Population

100 億弗 支出은 어마어마한 出血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 놀라운 成長은 日本이다. 美国과 비교하면 1955年의 100分之1에서 1973年엔 20分之1까지로 커졌다. 時間에 따른 추세를 보기 위해 이 表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2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四大強國의 國際豫算은 계속 增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美国을 除外한 다른 三國의 增加는 눈에 띈다. 70年代 初期인 現在로서는 中共과 日本은 美・蘇의 상대가 못되나



증가율을 참작하면 그 차는 점차 줄어들리라는 展望이다.

〈表-6〉 美·蘇·中·日의 国防豫算推移

单位: 百万弗 (\$×10<sup>6</sup>)

나라	1950*	1955*	1960*	1963*	1965*	1970**	1972**	1973**
美国	12,303	44,428	47,690	53,429	51,884	71,791	83,400	85,200
蘇聯	20,717	11,888	(未確認)	15,444	46,000	39,800	84,000	91,000
中共	876	2,500	2,420	5,530	6,000	4,880	8,000	10,000
日本	-	457	449	599	781	1,582	2,600	3,530
韓國	(未確認)	151	227	158	113	333	428	476
北韓	·	(未確認)	(未確認)	180	350	746	443	620

\* Sang-Woo Rhee, et. al. Attributes of Nations: Data and Codes 1950-1965.

Honolulu: DON, 1973서 채택한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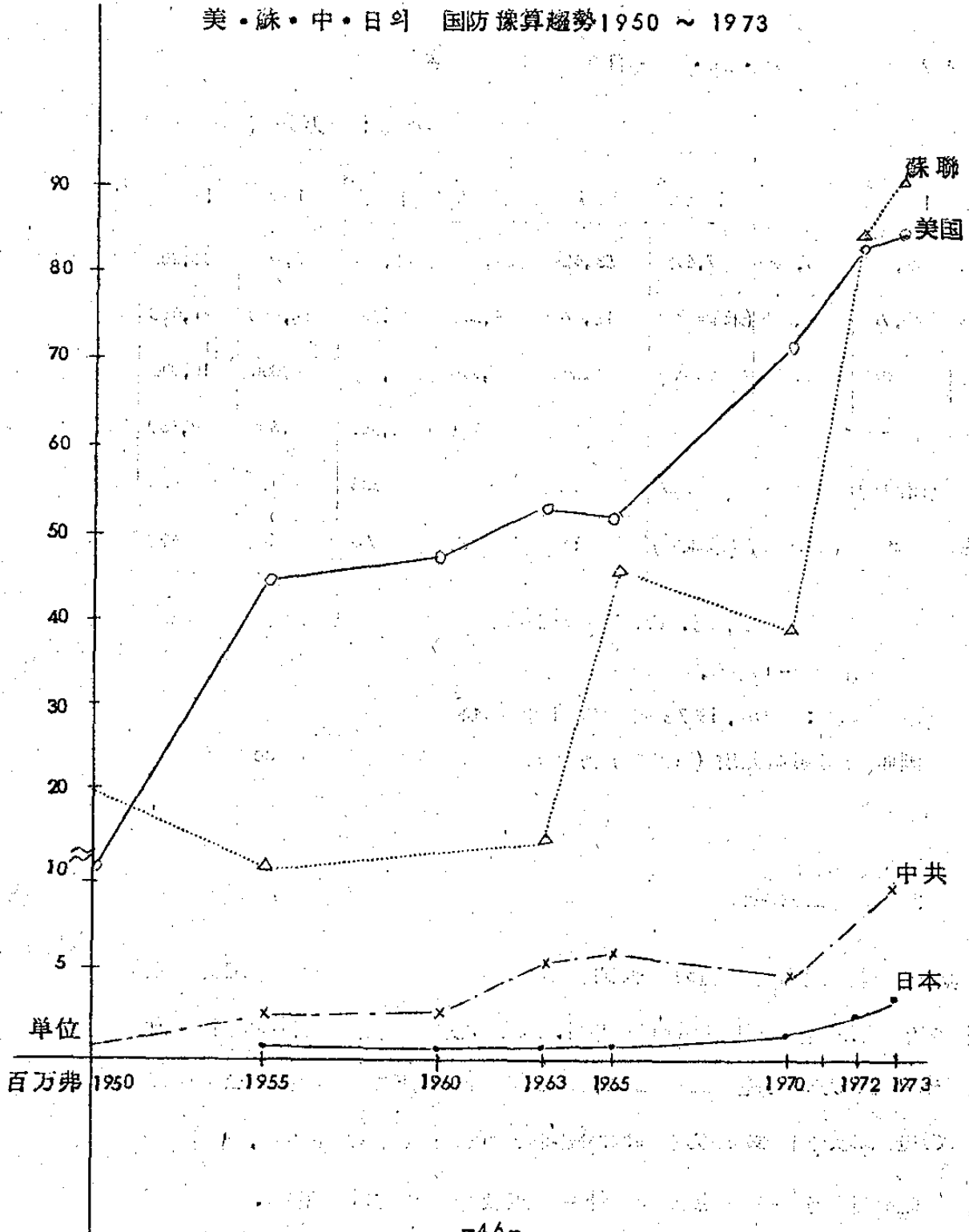
\*\* 英国戰略問題研究所 (ISS) 刊 The Military Balance 서 채택한 資料

### 6. 兵力 및 主要裝備

兵力 및 裝備는 直接 戰鬪를 할 수 있는 發顯된 国力이란 点에서 가장 직접적인 힘의 測定値가 된다. 勿論 兵力도 단순한 數字이외에 訓練 정도에 따라 戰鬪力에 많은 差가 있고, 또 主要武器도 性能에 있어서 差가 많으므로 數字만 比較하여 戰鬪能力을 評價하는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지만, 대체적인 윤곽을 提示해 준다는 点에서 아주 重要한 統計가 된다.

그림 - 2

美·蘇·中·日의 国防豫算趨勢 1950 ~ 1973



앞서 소개했던 英國戰略問題研究所의 調査를 토대로 작성한 「하트만」(Hartmann)의 표를 소개한다. (表-7)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美·蘇의 戰力은 모든 點에서 거의 대등하나 中共은 海軍과 核攻擊能力에서 훨씬 처지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은 現 段階에서는 다른 三強國에 비해 戰力은 問題가 안된다. 그러나 中共은 지금 核武器의 開發에 상당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1964年의 첫 核實驗을 한후 1974年 6月에 第16次 實驗까지 10年間 16번의 核實驗을 行한 中共은 이제는 「메가톤」級 水爆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은 지금까지 政治的 理由로 軍備를 미루어 왔으나 最近에는 從來의 소위 「專守防禦」(1971年 4月에 發表된 防衛白書參照) 概念을 벗어난 事實上의 再軍備에 着手하고 있다.

現在 進行中인 「第4次防衛力整備計劃」(1970年 10月發表: 計劃期間 1972年~76年)은 總經費 150億弗을 使用하는 어마어마한 計劃으로 이중에는 新武器 購入費 40億弗과 研究開發費 4億7千萬弗이 包含되어 있다. 註36) 이 計劃에 따르면 日本은 이 期間內에 새로 54隻의 함정등을 건조하여 總 2百50隻 約 20萬噸의 大海軍을 建設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現在의 日本의 造船能力이 全世界 造船量의 48.2%(約 2,486萬噸: 1973年 現在)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注目해야 한다. 이는 곧 日本이 원한다면 하루 아침에 世界最大의 海軍을 建設할 수 있는 潛在力이 되기 때문이다.

〈表-7〉 美·蘇·中·日의 軍備比較 (1971年)

나라	兵力 (千名)			艦			艇			戰 闘 航 空 機	ICBM	IRBM / MRBM	SLBM
	陸軍	海軍	空軍	잠수함			구축함및 프리게트	항공 모함					
				FBMS	N	G							
美国	1,107	623	757	41	53	46	208	18	6,000	1,054	-	656 *	
蘇 聯	2,000	475	550	30	60	266	103	-	10,000	1,510	700	560 *	
中 共	2,550	150	180	-	-	35	8	-	2,800	1*	20~30*	-	
日 本	179	38	42	-	-	11	39	-	375	-	-	-	
韓 国	570	(海병) 19 33	23	-	-	-	10	-	200	-	-	-	
北 韓	370	13	30	-	-	4	-	-	580	-	-	-	

Source: ISS 의 The Military Balance, 1971-1972 \*표를 한것은 같은 책 1972-1973

FBMS=Fleet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ICBM=대륙간 탄도탄

N=Nuclear Hunter-Killers

IRBM/MRBM=중거리 탄도탄

G=Conventional Submarines

SLBM=잠수함 탑재탄도탄

이러한 事項들을 종합해 보면 70年代 韓半島를 둘러싼 四強의 戰力은 核攻擊能力을 除外한다면, 서로 맞설수 있는 狀態가 되리라는 展望이 선다.

## 7. 影響力 綜合分析

위에서 살펴 본 極東 四大強國의 「힘」의 比較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게 해 준다.

첫째로, 潛在的 國力을 고려하면 四大強國 모두가 큰 影響力을 행사하기에 充分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 이미 갖추어진 戰力에서는 日本을 除外한 三大強國은 서로 比等한 힘을 保有하고 있으며,

셋째로 日本은 지금 추세로 나가면 軍備面에서도 곧 다른 三大強國과 맞먹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넷째로, 中共은 經濟發展程度가 다른 三大國에 比해 너무쳐져 있기 때문에 國力의 대부분이 國內에서 소모되고 對外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다섯째로, 만일 中共과 日本이 提携하게 되면 그 힘은 서로 相補的의 이어서 그 힘은 蘇聯이나, 美國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커진다.

이와 같은 結論을 토대로 判斷한다면 70年代 極東에서는 單獨으로 體制를 改編할 만한 힘을 가진 나라는 없고, 最少限 두나라 이상의 共同步調 없이는 體制에 變革을 주기가 어려울다는 點이다.

따라서 強大國의 影響力이 韓國의 南北關係에 어떤 程度로 미칠까를 分析하는데 있어서는 四大強國사이에 일어나는 離合集散의 樣相에 關心의 焦點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V. 70年代 極東의 國際情勢가 韓國의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위에서 지금까지 分析해 본 極東의 4大強國의 外交目標 및 國力 中心의 情勢判斷을 基礎로 이러한 國際環境이 韓國의 南北 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分析의 편의상 우선 韓半島의 南北關係가 理論上 취할 수 있는 몇가지 假想的 樣相을 想定하고, 각각의 樣相이 이루어질 때 마다의 強大國 各國의 豫想되는 움직임을 推理하는 形式을 취하기로 한다.

우리가 想定할 수 있는 南北關係는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南北이 하나의 國家로 統一되는 狀態이고 (統一모델) 둘째는 韓國과 北韓이 獨立된 政治單位로 남아 있는 이른바 共存의 狀態다. (共存모델) 이를 다시 細分한다면 統一모델로는 1) 南北間의 協商에 의한 政治統合, 2) 南北間의 聯邦形成, 3) 韓國에 의한 北韓解放 및 4) 北韓에 의한 武力統一을 생각할 수 있고, 共存모델로는 1) 敵對的 共存, 2) 中立的 共存 및 3) 同盟的 共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곱가지 모델에 대하여 그 모델의 性格을 簡略히 紹介하고 國際情勢가 어떤 影響을 줄 것인가를 음미해 보기로 한다.

## 1. 모델- I : 協商에 의한 南北政治統合 (Political Integration)

政治統合은, 南北韓이 하나의 政治單位를 이루고 그 住民이 모두 “一體感”을 갖는 狀態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즉, 韓半島 위에 單一國家와 單一政府가 存在하는 狀態에 이르는 것을 意味한다.

政治統合을 좀 더 具體적으로 記述하기 위해 最近 統合理論 (Integration Theory)에서 使用하는 代表的인 定義를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政治的 統合이라 함은 一般的으로 同一한 政治單位內的 住民사이 에 存在하는 「共同社會」의 關係를 意味한다.

즉 住民들이 그들 集團에 同一體意識과 自覺을 주는 어떤 種類의 相互紐帶에 의하여 묶여져 있는 狀態를 말한다. (註 37)

한 마디로 한 集團의 人間들이 하나의 共同社會를 이루고 그 集團의 人間들 스스로가 共同体意識 (Sense of Community)을 갖게 되는 狀態에 이르는 過程이 政治統合이다.

「도이취」(Karl W. Deutsch)의 定義는 좀 더 具體적이다.

“한 주어진 領土內에서는 住民들이 住民들間的 關係에 있어 “平和的 變更”이 이루어지리라는 데 대한 持續的이고도 信賴할 수 있는 期待를 確實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充分히 強하고 널리 普及된 共同社會意識과 制度와 그리고 慣行을 갖는다. 「安保·共同社會」(Security Community)란 그 共同社會의 所屬員들이 肉體的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다른 方法으로 그들간의 紛爭을 解決할 수 있다는 保障이 있는 社會다.” (註 38)

우리의 南北關係에서는 이런 定義에 依한다면 分断以前으로 돌아가는 것을 意味한다. 즉, 韓半島内에는 主權을 가진 하나의 國家만이 存在하고 外部世界에 이 國家를 代表하는 政府도 하나고, 内部로도 最高의 主權을 行使하는 政府가 하나가 된다.

非暴力的 方法에 의하여 이런 統合을 이루는 것이 여기서 假定하는 모델 - 1이다.

이러한 平和的 協商에 의한 政治 統合이 이루어지는 具體的 節次로는 1) 南北에 存在하는 政府間에 合意가 이루어지는 方法, 2) 政府를 超越하여 雙方의 住民들이 새로운 單一政府를 樹立하는 方法, 3) 國際會議 또는 外部勢力에 의해 單一政府를 樹立하는 政治秩序가 마련된 경우 및 4) 南北 어느 一方의 住民들이 自己側 政府를 解体하고 他方에 自意로 편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現在의 狀況을 土臺로 豫測한다면 1) 과 2)는 있을 수 없는 非現實的 狀況이다. 뿐만 아니라 3) 과 4)도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可能性이 稀薄한 狀況이다.

모델 - 1에 대한 國際環境의 反應은 어떠한 가를 살펴보자.

첫째로, 앞서 分析한 대로 (II, III, IV) 70年代에는 極東에 關係되는 美·소·中·日等 모든 強大國들이 體制改編을 원하지 않고 現象維持를 바라므로 「協商」을 통한 南北統合도 別 지지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平和的인 南北關係의 改善은 南北間의 戰爭의 危險을 없애주고 따라서 強大國들이 現地戰에 말려 들어가서 큰 戰爭을 일으키는 危險을 事前에 防止해 준다는 點에서 協商 自体는 歡迎할 것이다.



둘째로, 四大強國中에 美·蘇·日은 모두 自國의 特定思想이나 制度를 이 地域에 펼치려는 「유토피어리즘」의인 政策目標을 現實的인 行爲프로그램의 形態로는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도 協商에 의한 統合이 窮極적으로 가져 올 統一韓國의 政治制度의 形態에 대하여는 큰 關心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이 점에서 큰 妨害는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中共은 例外다.

中共은 韓半島의 共產化를 지원할 것이다. 美·蘇·日이 關心을 가지는 것은 統一韓國의 政治制度의 性格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 가까워 지느냐 하는 政治的 定向뿐이다.

셋째로 四大強國의 「現實的 利益」이라는 次元에서 본다면 問題는 簡單치 않다. 統一된 韓國이 「協商」으로 이루어질 때는 「中立」이 될 公算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統一된 韓國이 「中立」의이 되리라는 전제에서라면 美國은 統一自體를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은 極東에서의 強大國間의 均衡者로서의 役割을 원하고, 그 「지렛목」으로 親美的인 韓國의 存在가 必要한데 統一韓國이 그런 役割을 할 수 없게 되면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런 事態는 防止하려 할 것이다.

蘇聯은 中立的인 韓半島는 바라는 바가 못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中共牽制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極東政治全般에서의 影響力도 줄게 되기 때문이다. 中共은 統一된 韓國의 安保에 가장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지켜 볼 立場에 있다. 統一된 韓國이 国力으로 보아 美, 蘇, 日의 어느 나라에 대하여도 壓力을 지탱할 만한 安保體制를 갖추기 어렵다는 點을 考慮한다면 韓半

島가 차라리 分断된 美, 日 및 蘇에 分屬된 狀態가 더 바람직 할 것이다.

日本은 現在처럼 分断된 韓半島가 여러모로 有利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日本에 대하여 抵抗도 할 수 없고, 따라서 日本이 自國의 利益에 最大로 有利하도록 南北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日本의 경우는 中立化가 前提가 되는 統一된 韓國은 防止하려 할 것이다. (實際로 金山政英 駐韓大使도 1974年1月 한 세미나 席上에서 이런 취지를 公言했었다)

以上の 分析을 綜合해 보면 모델 - 1은 國內에서도 現實적으로 不可能할 뿐더러 國際情勢도 이를 強要하지 않을 것은 물론 오히려 저지하려 할 것이라는 結論이다. 그러나 앞서도 指摘했지만 「協商」 그 自体는 緊張緩和 및 戰爭不可能을 줄인다는 點에서 계속 支持할 것이다.

## 2. 모델 - 2 : 聯邦制에 의한 統合 (Plan for Federation)

聯邦은 우리의 경우 現存의 韓國政府와 北韓政府를 그대로 두어 支邦으로 하고 그 위에 全 韓半島에 걸쳐 管轄권을 갖는 또 하나의 政府를 樹立하는 것을 意味한다.

聯邦은 歷史上, 獨立된 政治單位를 이루던 二個 以上の 共同社會를 더 큰 國家로 統合하는 過程에서 생겨난 國家形態로서 對外的으로는 單一 主權國家로 認定되나 對內的으로는 政府의 機能을 支分國과 나누어 갖는 制限된 形態의 統治權 行使를 하게 된다. 그러나 一般的 傾向은 聯邦政府의 機能擴大를 통하여 實

質的인 單一政府國家로 轉移하고 있다.

美國의 聯邦制나 蘇聯의 聯邦制는 어떤 意味에서는 歷史上 遺物로 남은 감이 없지 않다. 즉 名目上 支分國은 그대로 獨立된 政府를 維持하나, 單一國家의 地方自治團體와 比較하여 별로 差異가 없는 程度에까지 機能이 縮小되어 버렸다.

注目할 것은 聯邦은 모두 政治統合의 過程에서 中間形態로 생겨진 것이고, 政治統合의 先決要件이 모두 充足되지 않을 경우에 택해진 制度라는 점이다. 즉 政治統合의 當爲의 必要가 생겼으나 한 國家를 成立시키기에는 여러가지로 條件이 充足되지 않는 경우에 暫定的으로 택하는 國家形態다.

聯邦制에는 두個 以上の 國家가 單純한 形式的 統合을 한 것으로부터 單一國家나 다름없는 것까지 폭넓은 種類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聯邦制를 採択하는 가에 따라 그 內容도 千差萬別이다.

第2次大戰以後에 分斷된 國家 즉, 韓國, 獨逸, 中國, 越南에 共通된 現象은 國家가 再統一과는 反對로 分斷이 굳어지는 이른바 分解過程을 밟고 있으면서도(註 39) 統一에 대한 念願이 높아 간다는 特異한 事實이다. 獨逸의 경우 「인포르마치온스 디너트」(Informationsdienst)誌에 紹介된 輿論調査를 보면 西獨 사람에게 있어서 關心을 갖는 가장 重要한 問題가 무엇이냐는 質問에 統獨이라고 對答한 사람이 1951年 10月の 18%에서 1965年 1月の 50%까지 15年間 계속 增加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註 40) 물론 或者가 主張하는 바와 같이 執權者가 統一 잇슈를 國民을 단결시키고 자기들의 執權體制를 強化하는데

活用하기 위하여 政策的으로 関心を 促求한 點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위의 네나라의 경우 統一을 원하는 民族的 感情이 계속 남아 있다는 點은 否認 못할 것이다.

理由は 여하튼 이러한 民衆의 態度가 계속 남아 있는 限 再統一은 큰 推進力을 갖게 되며 이러한 努力이 客觀的 條件에 의하여 單一國家 形成이 不可能하게 될 때 그 보다 쉬운 聯邦制로 轉될 可能性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순수한 뜻에서의 聯邦制라면 많은 民衆이 支持할 것이 豫想된다. 그러나 聯邦制를 一方이 相對方을 併呑하려는 中間戰略으로 惡用하려 할 때는 問題가 複雜해 진다.

北韓側이 계속 主張하고 나서는 聯邦案이 바로 韓國民의 統一念願을 교묘히 利用하여 「南半部解放」의 징검다리로서 쓰려는 計劃임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진정한 뜻에서의 國土統一을 위한 聯邦案은 雙方이 모두 開放社會이고 人民들의 意思가 自由롭게 政策에 反映되는 條件에서만 可能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聯邦制는 北韓의 社會的 條件 때문에 不可能한 案이다.

이러한 聯邦案을 推進할 때 國際社會에서의 態度는 어떨까?

聯邦案은 對外的으로는 모델-1의 協商에 의한 政治統合과 똑 같으므로 反應도 또한 같을 것이다.

즉 特別히 支持해 줄 強大國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實現不能인 案을 내걸고 하는 「協商」은 支持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協商

自体는 戰爭의 機會를 줄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 3. 모델 - 3 : 韓國에 依한 武力統一

이 모델은 北韓의 現存政府의 政策이나 態度와 關係없이 武力에 依하여 北韓의 政府를 없애고 韓國의 統治地域을 全 韓半島로 擴張하는 경우를 意味한다. 過去 自由黨 執權下의 統一政策이 이 모델에 依한 것이다. 1972年의 7.4 聲明, 그리고 1973年의 6.23 宣言等으로 現在 大韓民國政府가 公式으로 拋棄한 政策모델이기도 하다.

이 모델은 戰爭회피, 對決회피, 現狀維持에 依한 平和追求라는 一般國際情勢에 直接 挑戰하는 것이므로 國際社會에서의 壓力을 받게 될 것이다.

極東의 四大強國도 現體制改編을 反對하는 뜻에서 일단 모두 反對할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局地戰은 結果적으로 強大國間의 戰爭을 誘發할 것이고, 強大國들은 現在 이런 戰爭에 介入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의 先制攻擊等 일단 開戰이 되었을 때는 狀況이 다를 것이다. 美國의 경우 韓半島가 韓國에 依하여 統一된다는 事實은 美國外交目標에도 合致하고 또 現實적으로도 極東에 形成된 蘇·中·日의 勢力均衡關係를 더 積極적으로 調整할 수 있는 條件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利點을 確保하기 위해 中共이나 蘇聯과 一戰을 무릅 쓸 程度까지 支持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美國은 最少限 反對하지 않거나 最大限 間接的 支援까지

는 할 것이다.

蘇聯의 경우나 中共의 경우는 疑心の 여지없이 決定的으로 反對할 것이다. 外交目標에도 正面으로 配置되고 또 現實적으로도 不利해 지기 때문이다. 日本의 경우 韓國에 依한 統一은 日本과 같은 自由民主主義 政治體制를 가진 國家가 韓半島에 存在하면 害로울 것 없으나 韓國의 統一 自体가 日本의 韓國에 對한 影響力의 減少를 가져 올 것이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綜合하면 支持보다는 反對가 많다는 結論이다.

#### 4. 모델 - 4 : 北韓에 의한 武力統一

모델 3의 正反對의 경우다. 이 때의 各國反應을 살펴 본다면, 美國으로서는 絶對로 反對할 것이다. 美國의 위신, 外交目標에도 배척될 뿐 아니라 現實적으로도 極東의 勢力均衡이 共產障營에 有利하게 기울 것이고 美國의 교두보를 잃게 된다는 點에서 強力히 反對할 것이며 적어도 原狀回復까지는 武力介入도 할 可能性이 많다.

蘇聯과 中共의 경우, 理想으로 보아서는 積極的인 支持를 해야 하나 現實적으로는 支持하기 困難한 立場이 될 것이다.

蘇聯의 경우, 만일 統一된 後의 北韓이 蘇聯의 위성국이 되어 준다면 積極的인 支援을 할만 하지만, 北韓이 中共편에 선다면 오히려 損害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蘇聯의 態度는 北韓의 向背에 따라 積極的 支援과 저지의 양 주단이 될 것이다.

中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中共의 경우,統一後의北韓이親蘇로 될 경우에 입을 피해는 아주 크다.蘇聯의中共包圍網이完成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中共의對美,對日關係에도影響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統一後의韓半島는 여하한 경우에도美,蘇,日의壓力을 혼자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면中共은自國安保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蘇聯의 손에韓半島가 들어 가는 것은致命的인安保威脅이 될 것은 위에서 이미指摘했고,韓半島에日本의 교두보가形成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事態일 것이기 때문이다.中共으로서는 스스로가韓半島를掌握하지 않는 한 차라리美國이進出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中共은北韓에依한武力統一은 막으려고 할公算이 크다.

日本의 경우,共產勢力이 바로玄海灘 건너까지 와 닿는다는 것은安保上 달갑지 않은 일이 된다.中共 또는蘇聯勢力和緩衝地帶없이直接 닿게 되므로安保負擔이 훨씬 커질 것이다.

日本은,北韓에 의한武力統一은絶對로反對할 것이다.

이를綜合하면蘇聯의 경우를保留한 모든強大國들이北韓의武力統一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는判斷이다.

##### 5. 모델 - 5 : 敵對的 共存 (Hostile-Coexistence)

共存 (Coexistence) 이란 概念은 쓰는 사람의 目的에 따라多樣한 意味를 갖는다. 共存의 概念中 가장 弱한 意味는 "戰爭 없이 서로의 存在를 지킨다"는 뜻이다.

이 경우는 이른바 消極的 平和概念, 즉 非戰狀態를 總稱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敵對的 共存(Hostile Coexistence)은 戰爭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抑制되어 있으나 相互間的 敵對感情은 계속 남아 있어 언제라도 條件만 緩和되면 戰爭으로 突入할 수 있는 關係를 뜻한다. 「스탈린」(Stalin)은 1925년에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世界와 「부르조아」世界 사이의 “平和共存”을 宣言하였다. 그가 이 宣言을 發表한 經緯와 狀況을 考慮한다면 이것은 「부르조아」世界와의 戰爭不可避性이나 世界赤化革命의 目標를 수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스탈린」은 暫定的으로 戰爭을 回避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判斷을 하였음에 不過하다. 註 41)

韓國의 경우, 現在의 南·北關係는 敵對的 共存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南北間에는 서로 安保를 威脅하지 않겠다는 아무런 約束도 없고 또 그런 保障도 없다.

언제라도 戰爭은 可能하다. 非戰狀態는 意志와 關係없이 客觀的 條件에 의하여 進行되고 있을 뿐이다.

現在의 國際情勢는 이러한 敵對的 共存을 可能하게 해 주고 있다. 즉 敵對的 關係에서 共存이 可能한 理由는 바로 國際情勢의 膠着狀態 때문이다. 韓半島에서 어느 強大國의 利益 또는 損害를 일으킬 어떠한 體制變更도 危險視하는 70年代의 極東政治狀況은 韓國과 北韓間의 이런 敵對的 共存의 지속을 間接으로 支援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敵對的 共存은 힘의 均衡點에서만 維持될 수 있는 아주 危險한 狀態다. 現存 國際秩序에서 어느 특정 強大國이 自國側에 有利한 體制改編을 원할 때는 南北의 一方을 支援함으로써 쉽게 새로운 戰爭으로 들어 갈 것이다. 따라서 現狀維持를 원하는 強大國들로서는 이 敵對的 共存을 좀 더 安定性이 있는 狀態로 바꾸려는데 努力할 것이다.

強大國別로 보면, 美國은 戰爭再發可能性을 배제하기 위해 이 狀態를 早速히 증식시키려 努力할 것이며 蘇聯과 中共은, 韓國이 武力行使를 拋棄한 以上 南으로부터의 危險은 없을 것이므로 現存의 敵對的 共存에 대하여 아무런 威脅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現在의 敵對的 共存에 대해서 特別히 反對하거나 또는 고수하기 위해 努力하거나 할 理由가 없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現在의 南北間의 敵對的 共存關係가 가장 바람직한 것일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서로 對峙되어 있는 南北分斷에서 南과 北에 最大限의 影響력을 行使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狀況에서 自國의 安保負擔도 제일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 6. 모델 - 6 : 中立的 共存 (Neutral Coexistence)

中立的 共存은 敵對的 共存보다는 다소 緩和된 關係를 말한다. 定義한다면 "相互不可侵이 保障되어 있으나 積極的 協助가 이루어지지 않는 關係"라 할 수 있다.

[후르시초프] (Khrushchev) 은 1956年 2月 14日 蘇聯共産黨

第 20 次 全党大会에서의 演說에서 過去 「스탈린」이 主張했던 戰略的 共存」을 부정하고 새로 더 積極的인 平和共存을 내 세웠다. 註 42) 그는 平和共存은 單純한 戰略上의 政策이 아닌 蘇聯 外交의 基本政策이라 밝히고 戰爭이 아닌 方法으로도 世界를 社會化할 수 있다고 公言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共存은 “더 好轉된 關係, 더 強한 相互信賴, 더한 協助로 發展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후르시초프」가 主張했던 이런 「平和共存」이 적어도 主張대로라면 中立的 共存이 된다.

中立的 共存이 實現되려면 南北間에 相互不可侵條約, 또는 이에 準하는 意思表示가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相互不可侵을 確保할 어떤 制度的 保障이 있어야 한다.

中立的 共存은 極東에서의 強大國間의 現存하는 均衡을 變更없이 그대로 굳히는 一方, 戰爭可能性을 배제한다는 뜻에서 現狀維持를 바라는 각 強大國의 意思에 가장 잘 符合될 것이다.

따라서 強大國들은 特히 美國은 이러한 中立的 共存을 強要하는 方向으로 움직일 可能性도 높다.

中立的 共存의 現實化는 事實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共存은 雙方이 武力에 依한 統一을 拋棄할 때만 可能하다.

韓國은 이미 6.23 宣言을 通하여 武力拋棄 및 不可侵條約 締結을 政策으로 確定짓고 있다. 그러나 北韓이 과연 쉽게

「武力에 의한 革命完遂」를 拋棄할까가 疑問이다. 北韓이 中立的 共存을 수락할 可能性은 다음의 두 경우에 생긴다.

그 첫째는 北韓의 現指導層이 더 온건한 者들로 바뀌는 경우이고 둘째는 韓國의 国力이 北韓의 国力에 比해 越等하게 伸張되어 武力使用이 不能해 지는 경우일 것이다.

#### 7. 모델 - 7 : 同盟的 共存 (Coexistence Based on Alliance System)

同盟的 共存은 獨立된 政治體制를 갖춘 二個의 國家間에 共同 目標를 위하여 相互 依存의 關係에서 協助하는 關係를 말한다.

韓國의 경우, 이것은 政治적으로 兩分된 狀態에서 最大限으로 統一 目標를 達成하는 關係이다.

同盟的 共存의 모델로는 現在의 美國과 캐나다의 關係를 들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政治的 側面을 除外하고는 거의 하나의 國家와도 같은 깊은 機能的 聯関을 갖고 있다. 軍事的으로는 防空 網을 共同으로 運營하며, 市民들의 交流는 事實상 制限이 없다.

同盟的 共存모델을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가장 가까운 두 나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의 國際環境에서는 同盟的 共存은 相當한 抵抗을 받을 것이다.

同盟的 共存은 政治統合에 가장 가까운 狀態로서 同盟後의 外交的 向背에 따라서는 極東에서의 強大國間 勢力均衡에 決定的 影響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各國의 反應은 政治統合의 경우에 準하여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그 抵抗의 程度는 弱할 것이다.

## 8. 綜合的 評價

이제 위에서 일곱가지의 假想的 南北關係 모델에 대하여 미칠 極東政治風土의 影響을 檢討하였다. 이와 같은 分析結果를 綜合한다면, 어떤 南北關係 모델이 가장 現存 國際秩序에 符合하는 것일까? 全般的인 國際秩序와의 符合여부, 4大強國의 外交的 理想目標 및 現實的 利益과의 符合여부를 함께 考慮하여 符合度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로 順序를 정한다면 그 順序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中立的 共存, 2) 同盟的 共存, 3) 韓國에 의한 武力統一, 4) 敵對的 共存, 5) 北韓에 의한 武力統一, 6) 協商에 의한 統一 및 聯邦制

이 順位는 各國의 利益等を 表-8에서 機械的으로 合算한 附合度에 의한 것이다. 이 順位에 따른다면 70年代 國際情勢에 가장 無理없이 順應해 가는 統一政策은 中立的 共存의 追求라고 判定할 수 있다.

〈表-8〉 現在の 國際情勢가 南北關係에 미친 影響

모델	내용	國際秩序의		強大國의		外交目標		強大國의		現實利益		부합도	순위
		美國	蘇聯	中共	日本	美國	蘇聯	中共	日本				
모델-1	協商에의한統一	○	○	-	○	○	-	-	-	-	-	4	6.5
모델-2	聯邦制	○	○	-	○	-	○	-	-	-	-	4	6.5
모델-3	韓國에의한武力統一	-	-	-	+	-	+	+	-	○	○	7	3
모델-4	北韓에의한武力統一	-	-	+	-	-	-	○	○	-	-	5	5
모델-5	敵對的共存	-	-	-	○	-	○	-	○	○	+	6	4
모델-6	申立的共存	+	+	-	○	-	○	+	+	+	+	14	1
모델-7	同盟的共存	+	+	-	○	-	○	○	○	○	○	9	2

+ : 부합 또는 지지

○ : 中立的 狀態

- : 어긋남 또는 反對

• 부합도는 +를 2, ○를 1, 그리고 -를 0으로

로 換算하여 合計를 낸 것임.

## VI. 豫想되는 主要 變化와 그 影響

國際情勢는 계속 變한다. 70年代 初半인 지금에 形成되어 있는 「勢力均衡에 의한 安定」과 그 「和解무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첫째로 「勢力均衡」은 關係國 사이의 国力이 서로 어떤 衡平點에 이르렀을때 이루어지는데, 그 기초가 되는 国力은 時間에 따라 계속 變하므로 세력균형點도 계속 움직일 것이고, 그 變化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시스템變化( System Change )가 올것은 定한 理致다. 뿐만 아니라 지금 美·中共, 美·蘇, 日·中共 사이에 이루어진 「和解」가 현재의 「現狀維持」의 主軸을 이루는데, 이 和解는 어디까지나 緊張緩和를 뜻하는 「데탕뜨」를 의미하는 것이지 협조를 뜻하는 「앙탕뜨」(entente)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므로 언제 和解가 깨어질지 모른다. 즉 어떤 共通理念위에서 생겨진 협조관계가 아니라 당장의 便宜를 위해 임시로 취해진 「최소한의 양해」 사항이므로 그것은 「便宜」가 끝남과 동시에 함께 解消될 수 있는 關係다. 따라서 現在의 強大國 사이의 세력균형과 和解무드를 기초로 형성된 現狀維持의 安定勢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點을 留意하여야 한다.

둘째로, 위에서 分析한 國際政治秩序는 모두 各 強大國이 現在의 政治的 定向( Political Orientation )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前提下에서 行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假定은 몇가지 事態變化로 쉽게 깨어질 수 있다. 그중 특히 問題가 될수 있는

것은 中共의 現指導層이 물러난 후의 政治的 定向이라던가 日本의 帝國主義 復活, 美國의 新孤立主義의 強化, 또는 美·蘇 協調體制의 急進展 또는 日·中共의 제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이 중에 어떤 하나의 事態라도 생겨지면 그것은 現在의 極東情勢에 決定的 變化를 줄 것이다.

이러한 變化要因中에서 中共 指導部 交替에 따르는 變化, 日·中共의 제휴, 그리고 美·蘇의 共存體制 強化라는 세가지 假想的인 狀態를 中心으로 그 余波를 推理해 보기로 한다.

### 1. 毛沢東 死後의 中共政治 定向

中共을 建國 以前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두 指導者인 毛沢東과 周恩來는 각각 80歲와 75歲다. 따라서 머지않아 中共의 指導部에 交替가 오리라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中共처럼 國家權力이 몇 사람의 核心指導者 손에 集中되어 있는 政府에서는 이러한 지도층 교체에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中共의 對外的 政治定向을 左右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고리아」(Donald Zagoria)는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中·蘇의 葛藤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素는 指導層의 見解를 중심으로 하는 「政治的」인 것이라고 단언했다.<sup>註43)</sup> 그는 紛爭을 「이데올로기」 때문이나 「國家利益」 때문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나 國家利益은 中·蘇關係에 있어서 結合的 要素로 되고 分裂的 要素도 되므로 決定的인 것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자고리아」에 의하면 毛沢東의 對蘇 非妥協의 태도는 오랜 歷史를 가진 一貫性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毛生前에는 中·蘇 和解는 不能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 說을 뒤집어 보면, 中·蘇 관계는 和解내지 同盟까지 갈수 있는 要因도 많은데 毛의 見解 때문에 막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毛의 死後에는 對蘇 和解의 길이 열릴 可能性도 있다는 얘기다.

1973年 8月의 中國共產黨 第十次 全黨大會후의 中共 指導部에는 두개의 相爭勢力이 均衡을 이루고 있다. 그 하나는 江青이 이끄는 上海의 「過激派」세력이고 또 하나는 周恩來 中心의 「온건파」이다. 「과격파」는 지도자격인 江青과 姚文元이 탈락되었으나 9名의 黨政治局 常任委員會에 4名의 대표를 선출했다. 참고로 黨政治局의 分派別 構成을 소개하면 表-9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격파」와 「온건파」는 거의 均衡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毛가 죽은후 누가 後繼者가 될것인가는 예측이 극히 어렵다. 「자고리아」의 견해로는 「온건파」가 軍一部를 포함하는 聯合勢力을 形成하여 계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曹瑛煥교수는 그밖에 軍部の 단독집권, 中共의 分裂 및 온건파중 실용적인 「테크노크라트」의 長期집권의 可能性도 있다고 주장한다. (註44)

아무튼 이런 變化가 올때, 이들의 對外 政治性向은 어떤 樣態를 취할것인가 하는것이 우리의 關心事다. 「자고리아」는 「과격파」가 집권하면 美國 및 蘇聯에 모두 反對하는 文化革命期の



表 - 9 十大大會後의 中共黨政治局 分派別 構成

1) 副委員長

은건파 (周派)	과격파 (江派)
周 恩 来	王 洪 文
葉 劍 英	李 德 生
	康 生
2 名	3 名

2) 常任委員會 委員

은건파 (周)	과격파 (江)	非活動的 (中立)
周 恩 来	王 洪 文	毛 沢 東 (80세)
葉 劍 英	李 德 生	董 必 武 (86세)
	張 春 橋	朱 德 (86세)
2 名	康 生	3 名
	4 名	

3) 政治局員 (25 名)

은건파 (周)	과격파 (江)	非活動的 (中立)
周恩來 등 3 名	江青 등 13 名	毛沢東 등 9 名

資料 : 曹英煥, "中共의 內的發展과 外的關係의 展望", 朴在圭編, 東西細亞의 平和와 安保, 1974, pp. 151 ~ 2

外交政策으로 복귀할 것이고, 「온전파」가 집권하면 反對로 美國과 蘇聯과의 「에탕뜨」를 함께 扞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曹교수의 評價도 비슷하나 좀더 구체적이다. 그는 「온전파」가 집권하면 美國과의 和解는 더욱 깊어지고, 한국으로부터의 美軍철수는 微溫的이 되고 韓國을 承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격파」가 집권하면 美國과의 和解는 약화되고 民族解放戰爭 지원이 격화되고, 한국으로부터의 美軍철수를 강경히 주장할 것이고 한국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했다. (註45)

韓國의 南北關係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대체로 온전파가 집권하면 「유평적」의 요소가 약화되는 대신 「현실적 이익」이 앞설 것이므로 지금보다도 더 「安定」을 바라는 方向이 될 것이므로 中立的 共存을 더욱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과격파」가 집권하면 北韓에 의한 武力統一 또는 최소한 現存의 敵對的 共存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 2. 日·中共의 제휴가능성

「갈통」(Johan Galtung) 교수는 1973年 봄 하와이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日本은 어마어마한 經濟力을 가지고 있어 對外的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나 對內的으로 前과할 思想이나 理念을 갖지 않았고, 中共은 毛思想이라는 強力한 「메시지」를 가졌으나 수출할 힘을 못갖추었다. 만일 日製「소니」녹음기에 毛思想을 실어 世界로 수출을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위력을 발할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의 日·中共 제휴의  
무서움을 예고했었다. 과연 이러한 事態가 벌어질까?

日·中共의 제휴는 日本의 理念的 無色성과 中共의 現實的 必  
要를 함께 고려하면 "可能할 수 있는 한例"는 될 수 있다.

日本의 急速한 경제성장은 점차로 對美競争의 樣相을 띄우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美國의 防衛圈에서 점차로 벗어나고  
있다. 이는 곧 日本의 「安保自覺」을 불러 이르켰다. 日本은  
自國防衛를 위해서 中共이나 蘇聯과의 緊張緩和를 獨自的으로 모  
색하게 되었으나, 中·蘇 紛爭狀況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接  
近은 회피하려 하고 있다. 海外 依存度가 아주 큰 日本經濟構  
造는 美國과의 關係가 냉각됨에 따라 代替的인 出口를 찾아야  
하는 現實的인 要求를 불러 일으키는데, 日本外交의 理念的 無色  
性은 中共과의 협조에 장애를 만들지 않으므로 적어도 理論上  
日本의 對中共 接近은 予見할 수 있다.

中共의 對日接近 必要性은 더 確切적이다. 「오즈하」(Ishwer  
Chandra Ojha)는 中共의 앞으로의 外交政策에서 가장 중요한  
決定的 要素가 對日關係라고 지적하면서<sup>註46)</sup> 그 핵심은 "獨立  
된 日本側 政策에의 격려와 日本의 自主的인 核保有國化의 防止"  
라고 했다. 中共이 日本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는 「시베리아」  
開發 參與등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이끌려 蘇聯과  
의 협조체제를 이루지 않나하는 点이다. 그것은 中共의 孤立化  
를 뜻하는 것이므로 방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973年初 실제로 소련은 日本에 구체적인 「시베리아」 共同開

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中共은 対日 石油 수출증가를 약속했고, 日本에 제철공장, 화력발전소 등의 공장건설을 発注했다.

日本과 中共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中共에서 「온전파」가 毛를 계승하고, 美·日관계가 더 경쟁적이 될때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가상적인 日·中共의 협조상황에서는 南北關係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마 中立的 共存모델이 양국에 의해 지지받을 것이다. 南北間의 中立的 共存체제에서 中共은 北韓에 独占的 支配權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日本은 韓國에서 美의 勢力을 代替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은 極東의 政治무대에서 美·蘇를 함께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美·蘇의 共同반발을 誘發하게 될 것이다. 「갈등」교수가 간접으로 시사했던 바와 같이 이는 곧 白人對 黃人種間의 대립이라는 거대한 아시아 民族主義的 요소도 부각시킬 것이다.

### 3. 美·蘇의 協調體制 強化

갈등 (Conflict) 과 협조 (Cooperation) 는 서로 相克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갈등은 非協調, 협조엔 갈등이 없다는 等式은 成立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갈등과 협조는 모순개념들이 아니다.

「럼멜」(R.J.Rummel)의 社會場理論 (Social Field Theory) 에서는 갈등과 협조를 獨立概念으로 다룬다. 즉 갈등의 強弱이 협조의 強弱과는 無關하다고 본다. 갈등과 협조는 서로 다른 次元에서 共存할 수 있다는 얘기다. 現實 국제정치에서도 이것은

立証된다. 美·蘇의 관계는 지난 30年間, 갈등의 차원에서도 最高值, 그리고 협조에서도 아주 높은 數値를 나타냈었다.

美國과 소련은 兩極體制下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가장 격렬한 敵對關係에 있었었다. 그러나 現存 國際政治 秩序에서 最上位의 位階를 누려온 두나라라는 點에서, 自國들이 이러한 지도적 地位를 누릴수 있는 現 體制를 維持시키기 위한 노력에서는 항상 협조해 왔다. 두나라만의 核独占을 固守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에의 核拏散을 禁止하는 協정에서는 美·蘇는 共同 보조를 취했었다. 현재 全世界的인 「現狀維持」 風潮도 바로 美·蘇의 협조에서 形成된 것이다. 더구나 극동에서의 「현재 있는대로의 狀態의 維持」를 內容으로 하는 安定도 결국은 美·蘇 사이의 諒解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앞으로도 美·蘇間에는 美·蘇의 추월적 地位를 保障하는 國際政治 秩序의 構築, 유지에서와 現狀을 유지하는데는 계속 협조가 터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前提에서, 만일 앞서 假想했던 日·中共協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美·蘇는 共同으로 이를 견제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서의 南北關係는 미묘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日·中共軸과 美·蘇軸이 韓半島에서 交叉하게 됨으로 韓半島는 高潮된 激動期를 맞이할 가능성이 많다. 그때의 구체적인 狀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四大強國의 힘과 介入意志의 정도와 韓國 및 北韓의 政策方向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한 多變數函數가 될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로는 解答을 구할 수 없다.

#### 4. 綜合的 豫測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變動可能性에서도 韓國의 南北關係는 中立的 共存모델이 無理없는 政策이 되리라는 判斷이 선다. 韓國은, 北韓의 武力위협을 沮止하는 힘을 키우면서 계속 中立的 共存政策을 追求하는 것이 옳으리라는 結論이다.

< 註 >

註 1. J. David Singer, "The level of Analysis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Klans Knorr and Sidney Verba (eds.) The International System: Theoretical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p. 77-92  
및 Gh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Introduction (pp. 1-9) 참조

註 2.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ly and Sons, Inc. 1957.

이 代表的 例다.

註 3. Allison 의 이른바 modelII와 modelIII의 分析方法이다.

Allison, op, cit, p.5

註 4. Keith R. Legg and James F. morrison, Politic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pp. 1-34 에 소상한 설명이 있다.

註 5. Robert J. Lieber, Theory and World Politics, Cambridge, mass: Winthrop, 1972, p.121 그밖의 여러 定義

들은 Loc. cit. footnote3을 볼것.

註 6. 前記한 Lieber는 System理論의 有用性を 다섯가지로 要約 소개하고 있다. ibid. pp.131-32

註 7. 註 2 에서 소개한 冊에서 여섯가지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註8. James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 g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971, pp. 119-21 참조  
McClelland의 이론을 토대로한 國際情勢 予測方法에 관해  
서는 Mark Wynn, Theodore Rubin, & G. Robert Franco,  
"New Ways to measure and Forecast International  
Affairs", Futurist, Vol. VII, No. 5 (December, 1973)  
pp. 214-49 참조

註9. 平衡된 狀態가 安定된 시스템狀態라는 생각은 Newton의  
宇宙觀에서 淵由한다고 보는 見解가 있다.  
Dougherty and Pfaltzgraff, op.cit. p. 31 참조  
Balance of Power Theory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같은책  
pp. 30-36을 참조

註10. Game Theory의 前提條件은 Lieber, op.cit. pp. 18-20  
참조. Game Theory로 國際紛爭을 說明하라는 例로는,  
John C. Harsanyi, "Game Theory and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Vol. XI (December 1965),  
pp. 292-304 참조

註11. 게임理論의 有用性에 對해서는 Lieber, op.cit. pp. 36-37  
참조

註12. Quincy Wright,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 1955, Chap. 32 참조



- 註 13. 社会場理論의 자세한 沿革과 理論의 概念的 및 數理的  
 解説은 Sang-Woo Rhee, Communist China's Foreign  
 Behavior: An Application of Field Theory Model I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1971, Chap. III,  
 pp. 29-67 참조
- 註 14. Kaplan, op.cit. pp. 36-45 에 두個 System의 差異点  
 이 상술되어 있다.
- 註 15. John Spanier, Games Nations Play: Analyzing Inter-  
 national Politics, new york: Praeger, 1972  
 pp. 62-72 참조
- 註 16. Hans Morgenthau는 兩極体制를 危險하다고 보나 (Poli-  
 tics Among Nations, pp. 346-7), Kenneth N. Waltz는  
 오히려 安定이 온다고 본다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Summer, 1974, pp. 881-909)
- 註 17. Spanier, op.cit. p. 69
- 註 18. ibid. p. 82
- 註 19. loc. cit
- 註 20. Nikita S. Khrushchev, 소련공산당 第 20 차 全党대회  
 에서의 연설 (1956年 2月 14日). New York Times  
 1956年 2月 15日 字 10페이지에 英文이 게재되어 있다.
- 註 21. Edward Hallet Carr, The Twenty Years Crises,  
 1919-1939, 李元雨訳, 서울: 改造社, 1957, p. 133
- 註 22. 1961年부터 1970年에 이르는 10年間의 美國의 對亞細

匪政策의 간략한 要約은 James C. Thompson, Jr.,  
"The Nineteen Sixties as History: A Preliminary  
Overview", in Ernest R. May and J.C. Thompson, Jr.,  
(eds.)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A Surve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pp.390-409 참조

註 23. 李漢基 등 共著, 아시아情勢의 變動과 韓國, 한국경제연구총  
서 제 20 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77. p.20 서 引用

註 24. 朝日新聞編, The Pacific Rivals, new york: Weather-  
hill, 1971. p.384 참조

註 25. 1962年 이후의 소련외교정책은 단순한 戰術的 變更이  
아닌 외교목표상의 본질적 변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  
(Spahier, op.cit. p.312 참조.) 그러나 나는 「本質的  
變化」로 보지 않는다. 事態에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위  
해서 취한 행동지침의 수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헝가  
리」, 「체코」등에서의 독자적인 自由化運動등이 보여주는  
「陣營内の 叛旗」를 놓아둔채 匪·阿地域의 새로운 共  
産化 作業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戰略」이기 때문에 취  
하는 편 의상의 전술변경이라고 생각한다.

註 26. 1963年 1月 1日 「紅旗」는 「現代修正主義」를 비난하는  
비개의 論文을 게재, 對蘇論戰이 本格化되기 시작했다. 상  
세한 事態進展과정은 Peter Cheng, A Chro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towa, N.J.: Littlefield, Adams, & Co., 1972 참조

註 27. 平和五原則의 內容은 \* ①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② mutual nonaggression, ③ mutual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④ equality and mutual benefit 및 ⑤ peaceful coexistence\*

Harold C. Hinton, Communist China in World Politics, Boston: Houghton Mifflin, 1966, p. 103

註 28. 中共의 外交目標을 Marx-Leninism의 普及이라는 共產主義的 요소와 中國의 nationalism的 요소의 複合으로 파악하고, 後者가 더욱 強한 動機를 주어왔다는 見解를 가진 사람도 많다. Richard Lowenthal,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in Tang Tsou(ed.), China in Crisis, Vol.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 3 ~ 6 에 소개된 7 개의 기본목표를 참조. 소개 관교수도 이점에 관하여 中共의 對蘇 공격이 맑스-레닌主義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正統性을 내세우는데 注目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中共 外交政策의 基調\*, 國際政治論叢, 第 12 輯, (1972), p. 68 참조

註 29. 中共의 外交政策基底는 「國家利益」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최소한 中共이 세상을

보는 世界觀 (Weltanschauung) 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틀」로 形成되기 때문에 中共의 外交政策에서 이데올로기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것이 통설이다.

Robert A. Scalapino, "China and the Balance of Power", Foreign Affairs, Vol. 52, No. 2 (January, 1974), pp. 352-4 참조

註 30. ibid. pp. 360 - 1 참조

註 31. 戰後 日本의 外交政策에서의 思想的 無色性은 최근 발표된 若泉敬교수의 論文에 잘 요약되어 있다. Kei Wakaizumi, "A Positive Policy of Participation or the Continued Low Profile". (1974年 3月 12日 高大아시아 문예연구소 세미나서 発表).

日本과 美國사이에 유지되어 왔던 "同盟관계"도 日本측은 美國이 日本保護를 위한 番犬"의 일을 해온것이지 진정한 同盟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日本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아왔다. (日外相 Etsusabro Shinna의 日衆議院 外交分科委에서의 답변). The Pacific Rivals, p. 243

註 32. Wakaizumi, op.cit. 참조

註 33. Hartmann은 国力의 要素로 다음의 여섯가지를 들고 있다. 1) 人口學的 요소 2) 지리적 요소 3) 경제적 요소 4) 歷史的 - 心理的 - 社會學的 요소 5) 조직 - 行政的 요소 6) 군사적 요소. Frederick H. Hartmann, The Relations

of Nations, fourth edition, new york: Mcmillan,

1973. pp.41-66 참조

註 34. Quincy Wright 교수가 창안한 国力측정지수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55,

p. 599-600 참조

註 35. Sang-Woo Rhee, George Omen and R.J. Rummel,

Attributes of Nations = Data and Codes 1950-1965,

The Dimensionality of Nations Project, 1973

註 36. 李度珩著 벗꽃은 피려는가, 서울: 범서출판사, 1974,

pp. 183-85 및 朝日新聞社刊, The Pacific Rivals,

1971. pp. 336-37 참조

註 37. Philip E. Jacob and Henry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Philip E. Jacob and James

V. Toscano(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Lippincott, 1964, p. 4

註 38.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 5

註 39. 한 民族이 두나라로 나뉘후 진행되는 분해과정은 대체로

다음의 세단계를 거친다. 첫째로 時間이 감에 따라 분

리된 두 부분은 각각이 소속된 국제정치시스템과의 유대

가 깊어지고, 둘째로 이에 따라 두 부분은 새로운 독립

된 사회화과정(Socialization Process)이 진행되고 또 상호간의 「컴뮤니케이션」이 차단된 상태에서 각 부분은 서로 絶縁되어 버리고, 세계로 위의 두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감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각 부분은 분단전의 同一民族이라는데 대한 意識보다는 각각이 속한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관심과 一体感을 느끼게 된다.

Bruce R. Sievers, "The Divided Nations: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National Identity-Patterns in Germany, China, Vietnam, and Korea", in Jan F. Triska (ed.), Communist Party-States =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Studies, New York: Bobbs-Merrill, 1969, p.162

한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위에 적은 세가지 단계를 모두 정확히 거처온 셈이다. 즉 극단으로 표현한다면 한국과 북한은 이미 독립된 社会共同体로 틀이 잡혀 버린 셈이다.

註 40. Sievers, ibid. p.174, Table 6-12

註 41. Historicus, "Communist Doctrine on War and Coexistence", in Ivo D. Duchacek,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7, p.291 참조

註 42. Nikita Khrushchev, "Peaceful Coexistence-The Soviet View", in Duchacek, ibid. p.293 참조

- 註 43. 「도날드·자고리아」( Donald Zagoria ), 「中·蘇紛爭에 있어서의 毛沢東의 役割」, 朴在圭編, 東亞細亞의 平和와 安保, 慶南大學 極東問題研究所刊, 1974. pp.120-136
- 註 44. 曹瑛煥, 「中共의 內的發展과 外的關係의 展望」, ibid., pp.139-58
- 註 45. ibid., p.158 의 表를 해석한 것임.
- 註 46. 「이스와르 C. 오즈하」, 「中共의 新外交政策」, ibid., pp.175-94

